

번역·언어·기술
TransLinguaTech

2021년 2월

제2권

동국대학교 번역학연구소

Dongguk University Translation Studies Research Institute

동국대학교 번역학연구소 편집위원회 명단

(가나다순, 2021년)

편집위원장: 조 의 연(동국대)

편집위원: 김 대 영(충북대)

마 승 혜(동국대)

신 나 안(부산대)

유 한 내(전남대)

이 현 경(한국외대)

최 경 희(평택대)

최 진 실(계명대)

한 미 애(동국대)

홍 정 민(동국대)

Luiz Perez Gonzalez

(University of Manchester)

편집이사: 이 경 희(동국대)

한 미 애(동국대)

홍 정 민(동국대)

조 교: 배 유 진(동국대)

번역·언어·기술
TransLinguaTech
2021 제2권

목 차

- LSP 관점에서 바라본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의 전략적 지향점 / 남보리 5
- 번역사회학 개관 : 피에르 부르디외의 사회학 이론을 기반으로 / 이영훈 45
- 원격통역, 현 주소와 과제 / 이현경 71
- 번역의 미래에 대한 다중참여적 고찰 / 최희섭 101
- 편집규정 135
- 원고 작성 및 투고 방법 143
- 논문 작성 양식 146
- 연구윤리규정 150

LSP 관점에서 바라본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의 전략적 지향점 - 스타일 가이드 지침 연구 및 LSP 기계번역 서비스 사례

남보리
(한샘글로벌)

Nam, Bolee. *A Strategic Way of 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with LSP's point of view - A study on post-editing guidelines of styleguide and LSP's machine translation services*

In the recent machine translation (MT) market, a massive amount of machine translation-related projects are carried out every year, but there are no specific guidelines in Korea that can be used as a common standard by language service providers (LSPs), post-editors, and translators other than the client-specific localization style guides, such as Amazon.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the research on the MT post-editing guide conducted by the KIGO Style Guide Association as well as actual MT post-editing (MTPE) projects in the localization industry, which might help LSPs and post-editors coexist in the MT market. Despite the rapid development of neural machine translation (NMT), it is still too early to

publish machine translations without human quality assurance (QA) work, meaning that the role of human post-editors is still an inevitable requirement. In other words, this study was initiated with the purpose of serving translators who need to quickly adapt to emerging technologies and expand their careers in the MT market and for establishing a standard for Korean LSPs that can be used in the negotiations between LSPs and their customers. The initial study of the MTPE Style Guide ver. 2018 contains basic MT-related concepts and definitions of MT error types, but it was difficult for users of this guide to understand each error type, as there were no detailed examples provided. Therefore, a follow-up study conducted in 2019-2020 added detailed examples for each error type with relevant description. It is expected that such a study on the MTPE style guide would serve many people in the localization industry, and that additional research would allow for the creation of common guidelines for various localization subject matters related to LSPs and academia in the near future.

주제어: 신경망번역,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현지화서비스공급업체, 스타일 가이드
Key Words: NMT, 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language service provider, style guide

1. 서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도입된 NMT의 등장은 현지화 시장에 큰 충격을 던졌다. NMT 이전 시대의 기계번역은 업계와 번역가들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품질이 뛰어나지 않았지만, NMT는 현저하게 개선된 품질로 학계와 업계를 긴장시켰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현지화 시장의 다양한 부문에서 변화를 강요하였다. 그랜드 뷰 리서치(Grand View Research, 2018)에 따르면 기계번역이 2022년에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약 9억 833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LSP¹⁾는 증대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계번역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하고 사내외 전문 포스트에디터들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신규 번역 재원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기술적 여건도 무르익었다. 클라우드 기술은 현지화 업계 종사자들의 CAT 툴²⁾ 사용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 데스크톱 기반 CAT 툴 환경에서는 번역가가 별도로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생소한 소프트웨어를 설치 후 사용해야 했으나 새로운 클라우드 기반 CAT 툴 환경에서는 인터넷 연결만 되면 별도의 설치나 비용 부담 없이 번역 플랫폼 링크,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의 접속 정보를 제공받아 번역 프로젝트 및 자료에 접근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Smartling, Memsource, XTM 등의 클라우드 기반 CAT 툴에 대한 사용 비중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번역 재원이 클라우드 기반 CAT 툴로 번역 업무를 시작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 CAT 툴 사용의 증가가 가져온 또 다른 영향은 현지화 업무 환경에서의 기계번역 사용성 증가이다. LSP와 고객사들은 클라우드 CAT 툴 플랫폼에 범용 또는 자체적으로 트레이닝된 NMT API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현재 LSP 작업 환경에서 활발히 사용 중인 Smartling을 예로 들면, 번역 메모리에 팝업되는 화면에 상용 기계번역 엔진의 API가 적용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다.

-
- 1) LSP: LSP는 Language Service Provider의 약어로, 현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일컫는다.
 - 2) CAT 툴: CAT은 Computer-assisted translation or Computer-aided translation의 약어로, 컴퓨터를 활용한 번역 툴을 일컫는다.

이러한 기계번역 사용 환경의 변화는 현지화를 필요로 하는 고객사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서비스 요구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LSP는 단가 측면에서 기존 HT³⁾의 수익성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적합한 단가의 우수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기계번역의 적절한 생산성, 기계번역을 적용하기 적합한 콘텐츠 유형, 적정 수준의 단가 산출에 있어 고객사, 번역가들과의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에 있다. 안타깝게도, 실제 산출 가능한 생산성이나 최종 품질 면에서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에 대한 고객사들의 기대와 요구사항이 현수준보다 높은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기계번역은 다양한 조사 기관을 통해 예측된 향후 막대한 시장 규모를 비추어 볼 때 번역 시장이 처한 단순 위기로 치부하기보다 수많은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는 블루오션이라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해 보인다. 상술한 바와 같이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분야는 LSP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빨리 확보해야 하는 과제이면서도 번역가에게는 수요는 급증한 데 반해 경쟁이 적은 블루오션과 같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상황임에도, LSP가 요구하는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서비스에 대한 학계 재원들의 실무 경험 부족으로 인해 현업 시장에 우수한 재원이 뛰어들다 해도 적용하기 쉽지 않고, 이를 촉진해야 하는 업계에서도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에 대한 공통 지침이나 표준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 속에서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고자 본 스타일가이드 연구를 산학협력하에 시작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2018년 KIGO

3) HT: HT는 Human Translation의 약어로 인간 번역가가 실시하는 번역 공정을 일컫는다.

스타일 가이드 연구를 통해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지침에 대한 연구 과정과 내용을 다루고, 현지화 시장에서 LSP에 요구되는 기계번역 서비스 유형, 그리고 LSP 실무자의 입장에서 실제 기계번역을 도입하여 수행한 실무 프로젝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학계와 업계가 함께 나아갈 향후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MTPE)

스타일 가이드 연구, 2018

2.1 연구의 필요성

MTPE 스타일 가이드(출처: <https://www.facebook.com/groups/kigostyleguide>)는 KIGO⁴⁾ 산하 스타일 가이드 학회에서 제작한 가이드이다. MTPE 스타일 가이드의 제작의 필요성은 KIGO 스타일 가이드 학회가 2014년부터 4회에 걸쳐 배포한 IT(Information Technology) 분야 대상 영한 번역 스타일가이드의 제작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IT 분야 번역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신규 버전 배포에 따라 유사한 문구의 배포가 반복되므로, 소프트웨어 분야에 적합한 용어, 스타일의 일관화 및 표준화가

4) KIGO: Korea IT Globalization, 한국 IT 산업 세계화 학회는 2006년 1월에 현지화 업계의 주요 업체와 관련 종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학회로, 최초 이름은 한국 IT 업계의 용어 표준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담아 한국 IT 용어 표준화 학회(Korea IT Terminology Korean Standardization Association, KITSA)였다. KITSA는 한국 IT 산업 세계화 학회(Korea IT Globalization Organization, KIGO)로 이름을 변경하고, 세계화(Globalization)의 주축이 되는 용어 표준화뿐만 아니라 학술 행사, 강연, 컨퍼런스, 분과 모임, 학회지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지화 업계가 고객사로부터 별도의 스타일 가이드를 제공받지 않는 한, 오랜 기간 표준화된 스타일 가이드를 제정하지 않은 채로 번역 작업을 진행해오며 따라 현업 실무진 및 프리랜서 번역가들이 표준안 교육 없이 번역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는 현지화 시장에서 상당한 물량의 IT 소프트웨어 번역 프로젝트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에 막 진출한 통번역 출신 번역가들의 유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KIGO 스타일가이드 학회는 영한 번역 스타일 가이드의 작성 및 배포를 통하여 국내외 고객사를 대상으로 제안할 표준 마련, 현지화 업계 실무진 리바이저(reviser)⁵⁾ 교육, 나아가 협업 중인 외주 번역가들 대상 IT 분야 문서에 대한 번역 가이드 제공 등의 방안을 제공하였고, 학회 활동의 일환으로, 현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스타일 가이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KIGO 산학협력하에 숙명여대 영문 영문학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도 IT 영한 번역 스타일 가이드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4년 구글 신경망 번역의 상용화 이후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작업에 대한 현지화 업계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번역과 마찬가지로 표준화된 MTPE 스타일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KIGO 스타일가이드학회는 번역 스타일가이드와 함께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에 대한 영한 스타일가이드 작업에도 착수하였고, 2018년 12월 KIGO 총회에서 초판을 발행하였다. 본고에서는 2018년, KIGO 스타일 가이드 학회에서 작성한 MTPE 스타일 가이드에 수록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논하였다.

5) 리바이저(reviser): 번역가의 초벌 번역(translation)에 대한 bilingual revision을 실시하는 작업자를 일컫는다.

2.1 MTPE 스타일 가이드 구성

MTPE 스타일 가이드는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제안할 표준 마련, 포스트에디터와 프로젝트 매니저와 같은 현업 실무진 대상의 개념 이해/에디팅 교육, 나아가 포스트에디터로서 현지화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신규 포스트에디터들에게 국제 표준 ISO18587:2017에 의거한 기계번역의 개념, 기계번역 결과물의 오류 유형, 국제 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번역의 서비스 레벨 등 포스트에디터가 작업 시 필요한 기본 개념과 이에 대한 가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개정해나갈 계획이다.

(1) 개념 정의

본 스타일 가이드 내 정의는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국제표준 ISO18587:2017의 정의를 참고하였다.

- 기계번역(MT, Machine Translation)

국제표준 ISO18587:2017(이하 'ISO18587:2017')의 기계번역에 대한 정의는 'result of machine translation'이라는 한 줄로 간단히 정의되어 있다. 당초 국제표준 ISO17100:2015, 2.2.3에서 'outcome of machine translation'이라 정의했으나 개정 시 outcome은 result로 변경되었다.

- 기계번역 종류

본 스타일 가이드에 수록한 기계번역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규칙 기반 기계 번역(RBMT, Rule-based Machine Translation)
- 2) 통계 기반 기계 번역(SMT,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 3) 하이브리드 시스템(HMT, Hybrid Machine Translation)⁶⁾

6) 하이브리드 시스템, 즉 HMT는 규칙 기반 MT와 통계 기반 MT를 결합한 방식이다. 각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4) 신경망 번역(NMT, Neural Machine Translation)

-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MTPE, 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ISO18587:2017에서는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을 'edit and correct machine translation output'이라 정의한다. 즉, 기계번역 결과물을 편집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 MTPE 서비스 레벨(MTPE Service Level)

MTPE 서비스 레벨은 풀 포스트에디팅(Full post-editing, 축약하여 Full PE 혹은 Heavy PE라고도 함)과 라이트 포스트에디팅(Light post-editing, 축약하여 Light PE 혹은 Rapid PE라고도 함)으로 분류된다.

1) 풀 포스트에디팅(Full Post-Editing)

포스트에디터가 인간 번역(HT, Human Translation)에 비견되는 품질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 수행되는 포스트에디팅 과정이다.

2) 라이트 포스트에디팅(Light Post-Editing)

포스트에디터가 인간 번역에 비견되는 품질을 달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이해 가능한 수준의 번역물을 얻기 위해 수행되는 포스트에디팅 과정이다.

2014년 국내 기업 최초로 국제표준 ISO17100:2015 인증 취득을 준비하면서 기존에 통용되었던 TEP라는 용어가 국제표준의 의거한 용어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다. 현업에 뛰어들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해외 고객사/벤더사들과 소통하는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에서 TEP라는 용어를 수도 없이 사용했었지만, 인증 심사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시 국제표준에 의거한 용어를 사용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어야 하기에 오랜 습관

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했다. TEP는 Translation - Editing - Proofreading의 줄임말로 3단계 공정을 의미하며 국제표준 ISO17100:2015에 따른 용어는 Translation - Editing - Proofreading이 아니라 Translation - Revision - Review이다. 즉 작업을 수행하는 번역가만 동일하고, 기존에 에디터는 리바이저, 프루프리더는 리뷰어라고 부른다(ISO 17100:2015, 2.4.5). 기계번역을 수정하는 작업자의 경우 국제표준 ISO18587:2017에 의하면 포스트에디팅을 수행하는 사람, 즉 포스트에디터이다.

- 번역 오류 수정률(TER, Translation Error Rate)

기계가 생성한 각 번역 스트링을 포스트에디터가 얼마나 수정했는지 비율(%)로 환산하여 나타낸 수치를 의미한다. 이 수치의 경우 실제 2018년도에 진행한 LSP 실무 프로젝트에 도입되었다. 기존 현지화 프로젝트가 작업 입수 시 로그7)를 기반으로 고객사와 책정한 단가로 산출되어 번역료를 지급 받는 반면, 2018년 진행된 A 프로젝트에서 도입된 TER 방식은 포스트에디팅이 진행된 후의 결과물의 타겟(번역 시도착 언어) 스트링에서 수정된 비율에 따라 단가가 차등으로 책정되어 지급 받는 방식이었다. 이때 당시 TER에 확인할 수 있는 특이점으로는 포스트에디터가 타겟 스트링에서 50% 이상의 비율로 수정할 경우 fuzzy match⁸⁾ 중 no match⁹⁾/50~74% match¹⁰⁾ 단가(두 단가는 동일하

7) 로그(Log): 번역할 문서의 분량(문장/단어/글자 수)를 CAT 툴의 분석 기능에 의해 산출한 결과값이 수록된 컴퓨터 파일

8) Fuzzy match: CAT 툴에서 사용되는 기법으로, 텍스트 세그먼트와 이전 번역 데이터베이스(번역 메모리)에서 항목 간의 대응 관계를 찾을 때 100% 미만의 일치 항목일 경우를 일컫는다.

9) No match: CAT 툴에서 사용되는 기법으로, 텍스트 세그먼트와 이전 번역 데이터베이스(번역 메모리)에서 항목 간의 대응 관계를 찾을 때 0% 일치 항목

계 책정)로 책정되며 0%의 비율로 수정할 경우에도 100% match에 해당하는 단가로 책정된다는 것이었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No match와 100% match는 기존에 쌓아온 번역 메모리(Translation Memory, 축약하여 TM이라고 함)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일치하는지에 따라 CAT(Computer-Aided Translation) 툴로 번역 작업을 진행하며 TM을 참고하여 불일치되는 부분만 수정함으로써 번역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 메모리에 적용하여 비율별로 일치하는 스트링을 Fuzzy(퍼지)라고 부른다.

위에서 언급한 100% match의 경우 번역 메모리의 기존 번역과 100% 일치하는 스트링이라면 번역 공수가 들지 않는다는 것인데 별도로 단가가 책정된다는 점에 의아할 수 있다. 하지만 100% match는 번역 메모리의 기존 번역에서 100% 일치하는 소스(출발 언어)에 대한 번역이 존재하지만 앞뒤 문맥(context)까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OK라는 소스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번역 메모리에는 OK라는 소스가 ‘확인’이라는 번역이 저장되어 있다. 이때 실제 번역가가 진행하는 파일 문맥상 OK는 장비의 고장 유무에 대한 의미로, ‘정상’ 30%(normal)이라 번역해야 한다. 즉, 100% match의 경우 고객사가 검토를 요청할 경우 보통 10~20, 많게는 30%까지 책정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TER 방식이 도입된 포스트에디팅 작업에서 기계번역 스트링을 0% 수정했다라도 bilingual review를 진행한 데에 대한 에디팅

일 경우를 일컫는다.

- 10) 50~74% match: CAT 툴에서 사용되는 기법으로, 텍스트 세그먼트와 이전 번역 데이터베이스(번역 메모리)에서 항목 간의 대응 관계를 찾을 때 50~74% 일치 항목일 경우를 일컫는다. 이 경우 기존 번역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비율이 낮으므로 현지화 업계에서는 No match 단가와 동일하게 책정한다.

료를 지급한다는 것이며 이때 100% match와 동일한 단가를 책정한다는 의미이다.

Fuzzy 스트링 중에는 이렇게 앞뒤 문맥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match를 Context match(Trados Studio의 경우)라고 지칭하며 다른 CAT 툴인 Idiom Workbench의 경우 ICE match라는 이름으로도 사용된다. 기존에 쌓아온 번역 메모리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 고객사의 특별한 요청이 있지 않는 한, Context match나 ICE match에 대해서는 LSP의 번역/검수/검토의 공수가 들지 않으므로 번역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 오류 유형 분류

스타일 가이드 학회에서는 기계번역 결과물에서 나타나는 오류 유형을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범주로 구분했다.

1) 정확도(Accuracy)

MT 결과물에 오역(Mistranslation)이 없고 원문의 핵심 메시지가 전달되며 불필요하게 추가되거나 누락된 단어 또는 구문이 없는지 확인한다. 전반적인 MT 결과물의 정확도와 각 단어의 의미 정확도를 보는 것이며, 정확도 오류 카테고리에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하위 오류 유형이 포함된다.

가. 오역(Mistranslation): 원문의 내용이 MT 결과물에 의미상 정확하지 않게 전달되거나 독자가 이해하는 데 혼란을 주는 경우 ‘오역’ 오류로 분류한다.

나. 누락(Omission): 원문에 있는 내용이 MT 결과물에 반영되지 않아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경우 ‘누락’ 오류로 분류한다.

- 다. 추가(Addition): 원문에 없는 내용이 MT 결과물에 추가되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경우 ‘추가’ 오류로 분류한다.
- 라. 태그(Tagging): 원문의 태그가 MT 결과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삭제된 경우 ‘태그’ 오류로 분류한다.

2) 용어(Terminology)

MT 결과물에 번역된 용어가 해당 분야에 맞게 번역되고 전체 문서 내에서 일관되게 번역되었는지 확인한다. 또한 사전에 제공 받은 프로젝트 용어집(용어의 정의와 용도가 설명된 데이터베이스로서 제품, 서비스 또는 업계 용어를 설명하는 단어와 문구로 구성되어 있음)에 맞게 번역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용어 오류 카테고리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하위 오류 유형이 포함된다.

- 가. 일관성(Consistency): 원문의 용어가 MT 결과물 내에 일관성 있게 번역되지 않은 경우 ‘일관성’ 오류로 분류한다.
- 나. 업계 용어(Industry Terminology): 원문의 용어가 해당 업계(혹은 분야)에서 통용되지 않는 용어로 번역된 경우 ‘업계 용어’ 오류로 분류한다.
- 다. 용어집(Glossary): 원문의 용어가 사전에 제공 받은 용어집의 번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용어집’ 오류로 분류한다.

3) 언어적 측면(Linguistic)

MT 결과물에 오타자나 철자 오류가 없고 자연스럽게 번역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언어적 측면 오류 카테고리에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하위 오류 유형이 포함된다.

- 가. 문법(Grammar): 원문의 MT 결과물 내에 문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 ‘문법’ 오류로 분류한다.
- 나. 오타자(Typo): 원문의 MT 결과물에 오타자나 철자 오류가 있는 경우 ‘오타자’ 오류로 분류한다.
- 다. 가독성(Fluency): 원문의 MT 결과물의 가독성(자연스럽게 번역되어 읽고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음)이 떨어지는 경우 ‘가독성’ 오류로 분류한다. 어색한 번역을 발견하면 자연스럽게 다음 어 품질을 향상한다. 본고에서는 마케팅 콘텐츠에 대한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서비스 의뢰를 받아 진행한 실제 LSP 프로젝트에서 상용 기계번역 엔진인 구글과 파파고를 비교한 사례를 추가하였고, 해당 사례를 통해 가독성 부문에서 현저히 떨어진 품질에서 아직까지 기계번역이 침해할 수 없는 인간 번역가의 영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 라. 스타일 일관성(Style Consistency): 원문의 MT 결과물이 일관된 스타일이나 어조로 번역되지 않은 경우 ‘스타일 일관성’ 오류로 분류한다. 문서 내 적절하고 동일한 어조를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일관된 스타일로 번역되지 않은 경우 적절하게 수정하여 품질을 향상한다.

4) 준수(Compliance)

제품, 서비스에 해당하는 번역 스타일 가이드, 참조 자료, 고객 지침 및 피드백 등 사전에 제공 받은 자료를 참조하여 MT 결과물에 반영한다. 준수 오류 카테고리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하위 오류 유형이 포함된다.

- 가. 스타일 가이드(Style Guide): 원문의 MT 결과물이 사전에 제

공된 스타일 가이드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스타일 가이드’로 분류한다. 가이드 내 지침대로 번역되지 않은 경우 적절하게 수정한다.

나. 지침(Instruction): 원문의 MT 결과물에 사전에 제공된 번역 관련 지침이나 기존 작업물에 대한 피드백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지침’으로 분류한다. 이와 관련된 오류를 발견하면 적절하게 수정한다.

다. 참조 자료(Reference): 원문의 MT 결과물에 사전에 제공된 번역 메모리(TM, Translation Memory) 또는 기존 번역(Legacy Translation -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사전에 요청 받은 경우만 해당)을 참조하여 일관되게 번역되지 않은 경우 ‘참조 자료’ 오류로 분류한다. 이와 관련된 오류를 발견하면 적절하게 수정한다.

준수(Compliance) 오류 항목 역시 기계가 각기 다른 고객사/프로젝트 지침을 별도로 적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역시 인간 번역가의 영역이며 포스트에디팅 작업에서 포스트에디터가 요청 시 반드시 결과물에 반영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이다.

(2) Light PE와 Full PE 작업 우선순위와 작업 범위에 대한 다양한 견해 스타일 가이드 내 Light PE와 Full PE 작업 시 우선순위에 대해 기술되어 있으나, 현업에서는 각 프로젝트마다 고객사의 요구사항은 각기 다르다. 사실상 인간 번역(HT)에 비견되는 Full PE의 경우 고객사의 높은 품질 기대 수준으로 어느 정도 기존의 인간 번역의 단가와 유사한 단가 체계를 논의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Light PE에 대해서는 고객사와 LSP와의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느 범주까지 Light PE 공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Light PE에 대해 적정 단가와 생산성을 산출하기 위해 고객사에게 제시할 만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Light PE 작

업 범주에 대해 고객사를 이해시켜야 하는 등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실정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고객사들의 기대와 요구 수준이 정의된 수준보다 높은 것도 LSP가 해결해 나가야 할 난관 중 하나이다.

ISO18587:2017(4.2 Pre-production processes)에 따르면, TSP¹¹⁾는 사진 제작 공정(Pre-production process)에서 소스 언어 콘텐츠가 MT를 적용하여 포스트에디팅을 진행하기 적합한지 여부를 고객사와 필요 시 논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MT 시스템, 언어 조합, 분야 및 소스 언어 콘텐츠 스타일에 따라 MT/포스트에디팅 효율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Light PE에 대해서는 국제표준 ISO18587:2017 외 여러 연구 자료를 봐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대개 유사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Light PE는 MT 결과물을 이해 가능한 수준의 텍스트로 전환하는 과정이며, 대개 독자들은 해당 문서가 기계 번역 결과물임을 인지할 수 있다(Lommel and Depalma, 2016). 또한 Light PE는 'rapid' 포스트에디팅이라고도 지칭하는데 이 접근 방식은 MT 결과물을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윗문을 통해 완벽한 문체로 수정하는 과정은 아니다. 즉, 에디터는 번역되어서는 안 되는 태그나 구문을 비롯한 오역, 용어 실수 등 명백한 오류를 수정한다. 일부 LSP들은 한 명의 번역가가 MT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하루 2,700워드를 처리한다면 Light PE를 진행할 시 하루 20,000워드를 처리할 수 있다고도 언급한다(Lommel and Depalma, 2016).

Full PE의 경우 인간 번역(human translation)에서 산출 가능한 수준의 스타일 면에서 적합하고 언어적으로 정확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과정

11) TSP는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language service provider를 의미한다. TSP는 번역 회사, 에이전시, 조직(영리, 비영리 또는 정부기관), 번역 프리랜서, 포스트에디터, 인하우스 번역 부서가 될 수 있다(ISO18587:2017 3.3.5 translation service provider). 현지화 시장에서는 LSP라는 용어 역시 통용되고 있으며, TSP와 마찬가지로 language service provider를 의미한다.

으로 정의된다(Depalma, 2016a). 즉 이러한 에디팅 유형은 종종 기존의 번역-에디팅-프루푸리딩(TEP) 과정(Translation Production Model, Nov12, CSA)에서 수행한 것과 동일한 검토 과정이 포함되기도 한다. 즉 이 과정에는 문맥, 문법, 스타일, 가독성 및 용어 등이 포함되며, LSP는 링기스트가 헤비 에디팅(풀 포스트에디팅의 다른 표현)을 하루에 5000-8000워드 수행할 것으로 예측한다. 위와 같이 포스트에디팅 서비스 레벨을 풀 포스트에디팅과 라이트 포스트에디팅으로 구분하는 다양한 견해를 다룬 이유는 실제 현지화 시장에서 고객은 이 두 가지 레벨의 서비스에 대해 단가를 구분하여 의뢰하지만 실제 검수 항목은 명확하게 논의되지 않거나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스타일 가이드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명확한 근거를 통해 업계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다.

2018년 한 해 동안 진행된 포스트에디팅에 관한 지침 연구 결과인 KIGO MTPE 스타일 가이드 2018년 버전은 기계번역 결과물에 나타나는 오류 유형에 대한 정의가 나열되어 있다. 하지만, 상기 오류 유형에 대한 정의 외에 각 오류 유형의 상세 오류 예시가 추가되지 않아 가이드 독자의 이해를 높이기 쉽지 않다는 한계가 보였다. 이에 따라 2019~2020년에는 2018년 버전에 수록된 오류 유형에 대한 실제 사례나 예시를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사례/예시 추가 작업 외에도 가이드 독자의 범위를 포스트에디터에 국한 짓지 않고 포스트에디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현업 매니저들을 위한 프리에디팅(Pre-editing), 사전 제작 공정(Pre-production)에 대한 개념 정의를 추가하였다. 가이드 내 정의나 내용은 국제표준인 ISO18587:2017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본고에서는 상기 기술한 2018년 스타일 가이드 내용에 이어 2021년에 배포 예정인 MTPE 스타일 가이드 2021 버전에 수록될 사례 및 예시의 일부와 개념 정의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다뤄보았다.

3. MTPE(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스타일 가이드 연구, 2019-2020

3.1 MTPE 스타일 가이드 개정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2019년 6월부터 MTPE 스타일 가이드를 보완하는 연구를 시작하였고 2018년 버전에 수록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과 정의의 내용을 추가할 뿐만 아니라 MTPE 스타일 가이드 2018 버전에 수록된 각 기계번역 오류 유형에 대한 실제 예시와 사례를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다음과 같이 2020년 연구에서 수행된 개정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된 개념은 국제표준 ISO18587:2017의 정의를 참고하여 수록하였다.

(1) 프리에디팅(Pre-Editing) 개념 추가

프리에디팅은 MT를 적용하기 전에 소스 언어 콘텐츠를 다듬는 과정을 일컫는다. 포스트에디팅 작업을 수행하면 최초 MT 결과물의 품질을 개선하고, 포스트에디팅 워크로드를 줄일 수 있다. 특히, 동일 콘텐츠를 여러 언어로 번역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 효과적이다. 프리에디팅은 MT를 적용하기 전에 소스 언어 콘텐츠를 수정하는 작업을 일컫는다. PE 작업을 수행하면 최초 MT 결과물의 품질을 개선하고, 포스트에디팅 워크로드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여러 언어로 동일 콘텐츠를 번역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 효과적이다.

(2) 사전 제작 프로세스(Pre-Production Process) 개념 추가

고객사가 제공한 소스를 기계번역 엔진에 적용하기 전에 제공받은 소스가 포스트에디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다시 말해 기계번역 결과물

의 품질이 적절한 포스트에디팅 생산성을 도출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적합성 고려 요소]

- 소스 언어 품질
- 분야 적합성
- 파일 형식과 태그
- 용도와 대상 독자

- 생산성 내용 추가
- 서비스 레벨에 다른 주요 항목 내용 수정
- MT 오류 유형별 예시 추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범주의 기계번역의 오류 유형별 예시를 추가하여 해당 오류에 대한 상세 설명과 수정 예시를 추가하였다. 본고에는 몇 가지 예시를 수록하였고, 기타 예시는 2021년에 배포 예정인 MTPE 스타일 가이드 2021 버전을 참고할 수 있으며, 세부 예시의 내용은 추가적인 변경이나 보완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정확도(Accuracy)

가. 오역(Mistranslation)

소스	기계번역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설명
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화성에서 일어난 연쇄 살인 사건의	The TV program, "I Want It to Know," deals with Aunt, 56, a suspect of a serial murder on Mars.	The TV program, "Unanswered Questions" covers the case of Lee, 56, who is suspected of serial	'이모씨' 오역 '화성' 지역 이름 오역

용의자 이모(56) 씨에 대해 다룬다.	(구글)	murders in Hwasung.	
딘딘 모자는 김구라가 진행하는 티비쇼에 출연했다.	The DinDin hat appeared on a TV show hosted by Kim Gu-ra. (파파고)	DinDin and his mother appeared on a TV show hosted by Kim Gu-ra.	‘딘딘 모자’ 오역

나. 태그(Tagging)

소스	기계번역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설명
%1\$d hr %2\$d min	1 \$ d 시간 % 2 \$ d 분 (구글)	%1\$d시간 %2\$d분	%1\$d, %2\$d 태그 오류 수정

태그 오류의 경우 현재까지도 Smartling과 같은 클라우드 기반 CAT 툴 플랫폼에서 상용 기계번역 엔진의 API 적용 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태그가 많은 문서의 경우 낮은 생산성 문제로 포스트에디팅을 진행하기 적합하지 않다.

- 용어(Terminology)

가. 업계 용어(Industry Terminology)

소스	기계번역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설명
Real traffic	실제 교통 상황입니다 (파파고)	실제 트래픽	IT 콘텐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 사용

나. 용어집(Glossary)

소스	기계번역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설명
To create section views, run the command:	섹션 보기를 작성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파파고)	횡단 뷰를 작성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3D 설계기업 B사 용어집 미준수 section view: 횡단 뷰
Please check if there is any borderline content at your post.	게시물에 경계선 콘텐츠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파파고)	게시물에 위반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셜 기업 A사 용어집 미준수 borderline content: 위반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

- 언어적 측면(Linguistic)

가. 문법(Grammar)/오타자(Typo)

소스	기계번역	기계번역 포스트에 디팅	설명
Turn the key clockwise: all doors locked.	키를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 모든 문이 잠 깁니다. (구글)	키를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모든 문이 잠깁니다.	문장 뒤 콜론을 마침표로 수정 '잠 깁니다' 띄어쓰기 오류
The underside of the car also needs washing regularly.	자동차 밑면도 정기적으로 세탁해야 합니다. (구글)	자동차 하부도 정기적으로 세척해야 합니다.	'세척해야 합니다' 띄어쓰기 오류
enthusiasts	매니아	마니아	'매니아' 비표준어

나. 가독성(Fluency)

소스	기계번역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설명
That's a stratosp here only the GLA250 reaches.	그것은 GLA250만이 도달하는 성층권입니다. (파파고) 그것은 GLA250만이 도달 할 수있는 성층권입니다. (구글)	GLA250 정도는 되어야 누릴 수 있는 호사죠.	어색한 번역
The reimagined BMW X1 will cause fits among some enthusiasts, but I suspect it's the right move.	다시 상상한 BMW X1은 일부 매니아들에게 발작을 일으킬 것이지만, 저는 이것이 옳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파파고) 재창조 된 BMW X1은 일부 애호가들에게 적합하지만 올바른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글)	새로운 BMW X1은 일부 매니아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겠지만, 저는 이것이 적절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어색한 번역
Practicality-minded SUVs are selling like gangbusters right now.	실용성을 중시하는 SUV는 현재 갱스터처럼 판매되고 있습니다. (파파고) 실용성을 지향하는 SUV는 지금 갱버스터처럼 팔리고 있습니다. (구글)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SUV는 현재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어색한 번역

<p>The Sport SVR ostensibly seats five people,</p>	<p>스포츠 SVR은 겉보기에는 5명을 앉히지만, (파파고) Sport SVR은 표면적으로 5 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구글)</p>	<p>스포츠 SVR은 명목상 5인승이지만</p>	<p>어색한 번역</p>
<p>The thick, meaty steering wheel feels good in your hands.</p>	<p>두껍고 고기가 많은 핸들은 여러분의 손에서 좋은 느낌을 줍니다. (파파고) 두껍고 육중 한 스티어링 휠은 손에 기분이 좋습니다. (구글)</p>	<p>두툼하고 묵직한 스티어링 휠은 만족스러운 촉감을 선사합니다.</p>	<p>어색한 번역</p>

다. 스타일 일관성(Style Consistency)

소스	기계번역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설명
<p>Refer to “Automatic Locking Mode” for further information. See “Changing a wheel” on page 237.</p>	<p>자세한 내용은“자동 잠금 모드”를 참조하세요. 237 페이지의 "휠 교체"를 참조하십시오.</p>	<p>자세한 내용은 “자동 잠금 모드”를 참조하십시오. 237페이지의 "휠 교체"를 참조하십시오.</p>	<p>'하십시오'와 '하세요' 문체 불일치</p>

- 준수(Compliance)

가. 스타일 가이드(Style Guide)/지침(Instruction)/참조 자료(References)

소스	기계번역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설명
Also new for this release are two additional RN configuration options:	또한 이번 릴리즈에서는 두 개의 RN 구성 옵션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릴리즈에서는 RN 구성 옵션 2개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C사 제공 스타일 가이드 내 지침 미준수 - 불필요한 '의' 사용 지양

4. LSP 기계번역 서비스 사례

4.1 현지화 시장에 요청되는 기계번역 서비스 유형

LSP가 고객사로부터 받는 기계번역 관련 서비스 요청은 포스트에디팅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포스트에디팅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계번역 관련 서비스 유형이 요청된다.

(1)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 라이트 포스트에디팅

사례 1: 메이저 게임 기업 A로부터 추가 업데이트가 지원되지 않는 이전 출시 게임에 대한 라이트 포스트에디팅 요청을 의뢰받았다. 이 게임의 경우 아직 유저들은 존재하나 현지화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사장된 게임으로 간주되어 간단한 이해를 돕는 수준의 라이트 포스트에디팅을 수행한다.

- 풀 포스트에디팅

사례 1: 10년 넘게 HT를 고수하던 통계 소프트웨어 분야 기업 B사는 10년 이상 진행된 HT로 수집된 방대한 자체 번역 메모리와 상용 기계번역 엔진인 Google NMT를 적용하여 도출한 기계번역 결과물에 대해 포스트에디팅 서비스를 의뢰하고 있다. B사는 프로젝트 용어집, 번역 참고 자료, 스타일 가이드, DNT 목록과 같이 HT에 비견되는 품질의 풀 포스트에디팅을 의뢰하고 있다. 의뢰되는 언어 페어는 영어>한국어, 영어>일본어로 포스트에디팅 경험이 있는 리소스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

사례 2: 3D 설계, 엔지니어링,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분야 기업 C사는 이미 9년 전인 2011년부터 LSP에 자사 소프트웨어 콘텐츠에 대해 자체 커스터마이징된 기계번역 결과물에 대한 포스트에디팅 서비스를 의뢰했다. 그때 당시 단문의 경우 품질이 상당히 좋았으나, 문장 길이가 조금만 길어질 경우 기계번역 품질이 재번역이 필요할 정도로 좋지 않아 단가와 생산성 관련한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9년부터는 마케팅 콘텐츠에 대한 포스트에디팅 서비스 요청을 의뢰받았으나 마케팅 분야의 기계번역 품질이 매우 낮아 생산성 역시 현저히 떨어졌다.

(2) 기계번역 엔진 트레이닝용 대량 코퍼스 번역

LSP는 기계번역 엔진 개발사로부터 기계번역의 전반적인 품질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번역 엔진 트레이닝에 필요한 코퍼스 번역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한다. A사로부터 수년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코퍼스 번역을 HT(Human Translation) 진행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 1차 프로젝트 - 한국어 > 스페인어/프랑스어 각 20만 스트링에 대한 HT 진행
 - 작업 기간: 2014년 1월 - 3월
 - 번역 분야: 여행, 문화, 일상회화, 법률, IT
 - 리소스 투입: 스페인어/프랑스어 전공 번역가 30명 투입, 스페인어/프랑스어 원어민 검수가 10명 투입

- 2) 2차 프로젝트 - 한국어 > 독일어 20만 스트링에 대한 HT 진행
 - 작업 기간: 2018년 2월 - 4월
 - 번역 분야: 여행, 문화, 일상회화, 법률, IT
 - 리소스 투입: 독일어 전공 번역가 15명 투입, 독일어 원어민 검수가 5명 투입

- 3) 3차 프로젝트 - 한국어 > 베트남어 10만 스트링에 대한 HT 진행
 - 작업 기간: 2019년 7월 - 8월
 - 번역 분야: 여행, 문화, 일상회화, 법률, IT
 - 리소스 투입: 베트남어 전공 번역가 15명 투입, 베트남어 원어민 검수가 5명 투입, 베트남어 프로젝트 매니저 1명 투입

- 4) 4차 프로젝트
 - (1) 한국어 > 일본어/베트남어/중국어/영어 각 5만 다국어 스트링에 대한 HT 진행
 - (2) 영어 > 한국어/일본어/베트남어/중국어 각 5만 다국어 스트링에 대한 HT 진행
 - (3) 영어 > 일본어 10만 스트링에 대한 HT 진행
 - 작업 기간: 2019년 11월 - 12월

- 번역 분야: 법률, 뉴스 기사, 핵물리학, 일상회화
핵물리학과 법률 분야의 경우 소스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 전문 번역가 중에서도 최상위 단가를 체결한 번역가를 투입하여 진행하였다.

- 5) 5차 프로젝트 - 한국어 > 일본어 10만 스트링에 대한 HT 진행
 - 작업 기간: 2020년 8월 - 9월
 - 번역 분야: 일반인 댓글, 뉴스 기사
 - 리소스 투입: 일본어 전공 번역가 9명 투입, 일본인 원어민 검수가 5명 투입

코퍼스 번역은 HT로 진행되므로 각 분야별 난이도에 따라 LSP의 리소스 팀은 전공 번역가의 CV(Curriculum Vitae)를 바탕으로 1차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2차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여 채용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3) 고객사의 커스터마이징된 기계번역 품질 평가

기계번역이 시장에 미치는 변화의 물결에 맞춰 수많은 메이저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기계번역 엔진을 도입하거나 상용 기계번역 엔진과 기존에 보유한 번역 메모리나 용어집 등의 자료를 통합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계번역의 사용률을 높이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한 예로, 전 세계 수많은 게임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메이저 게임 기업 D사는 향후 기계번역을 현지화 공정에 도입하여 현지화에 들이는 예산과 시간을 절감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D사는 상용 기계번역 엔진에서 1차적으로 결과물을 도출하고 각 언어별 프로젝트 용어집을 적용한 커스터마이징된 기계번역 결과물을 제공하고 LSP에 해당 기계

번역 결과물에 대한 품질 평가를 요청했다.

이러한 품질 평가에는 3자 검수라고도 하는 LQA(Language Quality Assurance) 프로세스의 양식이 사용되기도 하고, 전반적인 품질 수준에 대한 간단한 평가(general comment)만 제공하는 등 고객사의 요구에 맞춘 서비스를 수행한다.

(4) 다양한 공정이 수반된 코퍼스 프로젝트 수행

LSP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계번역 전처리와 후처리 등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코퍼스 프로젝트 서비스를 수행하기도 한다. 다음은 실제 LSP가 수행한 프로젝트 사례이다.

사례 설명 - 최근 기계번역 개발/공급업체인 B사로부터 코퍼스 쌍 제공 요청을 의뢰받았다. 이 요청은 코퍼스 쌍을 생성하기 위한 소스 크롤링 작업부터 기계번역 적용, 포스트에디팅 진행에서 용어집 생성에 이르는 복합적인 서비스 요청이었으며, 본 서비스에 요구된 작업은 다음과 같다.

1) 코퍼스 크롤링

- 분야: 자동차 분야 콘텐츠
- 크롤링 대상 소스 언어: 영어, 한국어
- 콘텐츠 종류: 자동차 매뉴얼, 웹사이트/블로그 콘텐츠
- 소스 언어/타겟 언어 페어:
 - 영어 > 한국어
 - 한국어 > 영어
 - 한국어 > 베트남어
 - 한국어 > 인도네시아어

2) 기계번역 API를 적용한 코퍼스 쌍 생성

- 상용 기계번역 엔진인 구글 번역과 파파고 품질 비교
- 품질 비교 테스트 언어 페어:
 - 영어 > 한국어
 - 한국어 > 영어

정해진 예산과 기한 문제로 전체 기계번역 결과물에 대한 포스트에디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포스트에디팅 공정을 고려할 때 더 나은 품질의 코퍼스 쌍을 도출하기 위해 구글과 파파고라는 두 기계번역 엔진의 결과물을 비교하는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분야별, 언어별로 두 엔진의 품질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5) 영어 > 한국어 품질 테스트 (자동차 분야 매뉴얼)

우선 크롤링한 자동차 매뉴얼 영어 > 한국어 언어쌍의 경우 파파고보다 구글이 적절한 분야 용어 선정, 번역 정확도 면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파파고 번역의 경우 부적합한 분야 용어 선정, 오역이나 누락 등의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 하지만, 현재까지도 구글 NMT는 영어 > 한국어 번역에서 문법/띄어쓰기 부문에서 파파고에 비해 현저히 낮은 품질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인하우스 링기스트 팀이 구글 번역에서 발견한 문법/띄어쓰기 오류 목록이다.

<표 1> 구글 번역에서 자주 발견되는 한국어 맞춤법 오류

잡 깃 > 잠깃	를이 > 를 이
기위 > 기 위	면이 > 면 이
를위 > 를 위	를주 > 를 주

<p>한주 > 한 주 룩주 > 룩 주 야합 > 야 합 고합 > 고 합 록합 > 록 합 을합 > 을 합 록하 > 록 하 게하 > 게 하 야하 > 야 하 을하 > 을 하 적인 > 적인 를위 > 를 위 을보 > 을 보 를보 > 를 보 이있 > 이 있 예있 > 예 있 가있 > 가 있 수있 > 수 있 고있 > 고 있 수없 > 수 없 가없 > 가 없 이없 > 이 없 이되 > 이 되 이뵈 > 이 뵈 가되 > 가 되 가뵈 > 가 뵈 어듬 > 어듬 는이 > 는 이 은이 > 은 이 때이 > 때 이 이이 > 이 이</p>	<p>작동 한 > 작동한 작동 할 > 작동할 내려 가 > 내려가 된대로 > 된 대로 워 저 > 워저 을받 > 을 받 할만 > 할 만 안됩니다 > 안 됩니다 컴 파트 > 컴파트 어린 이 > 어린이 똑딱 거리는 > 똑딱거리는 러 기지 > 러기지 (공백)인(공백) > 인(공백) (공백)만(공백) > 만(공백) (공백)리도록 > 리도록 (공백)이도록 > 이도록 (공백)/(공백) > / (공백)(> ((공백): > : (공백)개의 > 개의 (공백)시간 동안 > 시간 동안 (공백)초 동안 > 초 동안 (공백)분 동안 > 분 동안 (공백)명의 > 명의 숫자와 단위 사이 공백 삭제 동사(공백)할 > 공백 삭제 동사(공백)될 > 공백 삭제 동사(공백)한 > 공백 삭제 동사(공백)했 > 공백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등</p>
--	---

상기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구글 번역을 테스트한 결과, 포스트에디팅 작업 시 추가적인 공수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었다. 크롤링한 소스를 구글 번역을 적용한 후 포스트에디팅을 수행하기 전에 포스트에디팅 공정으로 전체 수정이 필요한 오류 목록을 추출하여 수작업으로 일일이 수정할 필요 없이, 엔지니어링 팀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포스트에디팅 공정에서 드는 수고를 덜었다.

실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바는 NMT의 품질이 비약적일 향상되었다 해도 현재까지 한국어 띄어쓰기 문제는 개선되지 않아 포스트에디터의 생산성을 저하하는 요소로 작용된다.

4.2 포스트에디팅 공수를 줄이기 위한 상용 기계번역 엔진 품질 비교

고객사로부터 자동차 분야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영어>한국어 총 15만 스트링의 코퍼스 쌍을 제공하도록 의뢰를 받았다. 자체적으로 찾은 영문 자동차 매뉴얼과 고객사 제공 KBS 엔터테인먼트 분야 콘텐츠를 상용 기계번역 엔진에 적용하여 양질의 MTPE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므로, 품질과 생산성을 모두를 높이려면 상용 엔진의 결과물을 비교/테스트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영어 > 한국어 자동차 매뉴얼 분야의 경우 위와 같이 구글 번역을 사용한 후 포스트에디팅을 수행하였다. 반면에 한국어 > 영어쌍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의 기계번역 품질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영화, 드라마, 노래 제목과 유명인사의 이름과 같은 '고유명사' 번역에 있어 구글이 현저히 낮은 품질을 보였다. 하지만 파파고의 경우 문장이 길어질 수록 누락 (Omission) 오류율이 높아졌다. 고유명사의 경우 구글과 파파고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표 2〉 구글과 파파고의 고유명사 번역 비교

소스	구글	파파고	설명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 음악 을 만든 프로듀서 피독 이	Producer Podok , who made t he music of the world-class	Pdogg , the producer of the worl d-renowned group BTS music, r	유명 프로듀서 ' 피독 '의 이름을 파파고의 경우 ' Pdogg '으로 제

<p>지난해 음악 저작권료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p>	<p>group BTS, received the most music copyright fees last year.</p>	<p>received the highest royalties last year.</p>	<p>대로 번역한 반면, 구글은 'Podok'으로 잘못 번역함</p>
<p>‘제5회 콤카(KOMCA) 저작권 대상 시상식’에서 피독이 지난해 대중 부문 작사·작곡 저작권료 1위에 올라 두 개의 대상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p>	<p>At the “5th KOMCA Copyright Awards Ceremony,” it was announced on the 16th that poisoning was ranked first in the public lyricist and composition copyright fees last year and received two grand prizes.</p>	<p>At the "5th KOMCA Copyright Awards", Pdogg announced on the 16th that he would receive two grand prizes as he ranked first in copyright fees for songwriting and composition in the public sector last year.</p>	<p>상기 예시와 마찬가지로 유명 프로듀서 '피독'의 이름을 파파고의 경우 'Pdogg'으로 제대로 번역한 반면, 구글은 'poisoning'으로 잘못 번역함</p>
<p>17일부터 LG아트센터에서 공연될 뮤지컬 '몬테크리스토'는 국내 뮤지컬 시장에 유럽 뮤지컬 흥행 포문을 연 대작으</p>	<p>The musical “Montech Resto”, which will be performed at the LG Art Center on the 17th, is a masterpiece that op</p>	<p>The musical "Monte Cristo," which will be performed at the LG Arts Center from the 17th, is a masterpiece of European musical</p>	<p>뮤지컬 '몬테크리스토'를 파파고는 'Monte Cristo'로 제대로 번역한 반면, 구글은 'Montech Resto'로 잘못 번역함</p>

<p>로 다섯 번째 시즌을 맞은 올해 그간의 노하우를 총집결한 역대급 시즌을 예고했다.</p>	<p>ened the box office of European musicals in the domestic musical market.</p>	<p>box office success in the domestic musical market, signaling the best season of this year, which marks its fifth season.</p>	
<p>2010년 초연 당시 뮤지컬 ‘몬테크리스토’의 흥행을 이끈 초연 멤버 중 하나인 옥주현은 9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올라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메르세데스’를 선보일 전망이며, 2016년에 이어 두번째로 출연할 린아는 파워풀한 가창력과 다양한 캐릭터를 넘나드는 폭넓은 연기로 극 중 인물의 기쁨,</p>	<p>Ok Joo-hyun, one of the premiere members who led the box office of the musical 'Montechristo' at the time of its premiere in 2010, is expected to re-enter the stage after 9 years and show the perfect 'Mercedes', and Lin-A, who will appear for the second time following 2016 With powerful</p>	<p>Ok Joo-hyun, one of the premiere members of the musical "Monte Cristo" at the time of its premiere in 2010, is expected to stage again in nine years to showcase the perfect "Mercedes," and Lin A, who will appear for the second time after 2016, will express all the joy, sadness and anger of the characters in the play.</p>	<p>상기 예시와 마찬가지로 뮤지컬 ‘몬테크리스토’를 파파고는 'Monte Cristo'로 제대로 번역한 반면, 구글은 'Montechristo'로 잘못 번역함</p>

<p>슬픔, 분노를 모두 표현해낼 예정이다.</p>	<p>vocal skills and a wide range of acting across various characters, the drama will express all the joy, sadness, and anger of the characters.</p>		
<p>영화사 월광은 ‘군도 : 민란의 시대’, ‘공작’ 등으로 작품성과 흥행성을 모두 인정받은 윤중빈 감독과 프로듀서 출신의 국수란 대표가 이끄는 제작사로, ‘검사의전’, ‘보안관’, ‘돈’ 등의 히트작을 만들어냈다.</p>	<p>Film company Wolkwang is a production company led by director Yoon Jong-bin, who has been recognized for both his work and box office success in 'Gunddo: The Age of the Minran' and 'Duke', and CEO Guk Su-ran, a former producer. And made hits.</p>	<p>Film company Wolgwang is a production company led by director Yoon Jong-bin and producer-turned-CEO Kook Soo-ran, who have been recognized for their work and box office performance through "Gunddo: Age of the People's Revolt" and "The Age of the People's Revolt."</p>	<p>영화 제목 ‘군도 : 민란의 시대’ 중 ‘민란’을 파파고는 'People's Revolt'라고 번역한 반면 구글은 음차 그대로 'Minran'으로 오역함</p>
<p>다음 날 아침 딘딘 모자는 추</p>	<p>The next morning, Din Dean</p>	<p>The next morning, DinDin's hat</p>	<p>가수 '딘딘'의 이름을 파파고는</p>

<p>가 게임 시간 적립을 위한 가족 미션으로 아침 산책을 했고, 서로 손을 잡고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p>	<p>Hat took a morning walk as a family mission to accumulate extra game time, holding hands and having a quiet time.</p>	<p>took a walk in the morning as a family mission to set aside additional game time, and spent a cozy time holding hands.</p>	<p>'DinDin'으로 제대로 번역한 반면 구글은 'Din Dean'으로 잘못 번역함 '딘딘 모자'는 어머니와 아들을 의미하는데 파파고와 구글 모두 모자를 'hat'으로 잘못 번역함</p>
--	---	---	---

위의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파파고는 번역 내용의 다른 오류를 차지하고 한국어 > 영어 페어 번역에서 고유명사 부분에서 구글 번역보다 나은 품질을 보였다. 포스트에디팅 생산성을 높이고자 위와 같은 두 언어 페어에 대한 기계번역 엔진 품질 테스트를 거쳐 영어 > 한국어 자동차 매뉴얼의 경우 구글 상용 기계번역 엔진을, 한국어 > 영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경우 파파고 상용 기계번역 엔진을 적용한 후 포스트에디팅을 수행하였다.

5. 결론

기계번역시장은 막대한 규모로 성장하여 오늘날 현지화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많은 물량의 파생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업계 트렌드는 LSP에게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겨 주었으며, 갈수록 증대되는 기계번역 서비스 요구와 요청되는 작업의 다양성 또한 커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2018년에 실시한 MTPE 스타일 가이드 연구 학회의 연구 결과인 스타일 가이드 내 수록 내용을 다루었다. 국내 시장에서 LSP와 현업 실무진들이 활용할 만한 지침서로 제공하기 위해 2018년 스타일 가이드 연구를 시작하였고, 해당 버전에는 MT 개념과 오류 유형에 대한 정의를 수록하였다. 하지만 2018년 스타일 가이드에는 세부적인 오류 유형 예시가 없어 스타일 가이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엔 부족하다는 한계가 발견되었고, 2019년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행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9년에 시작된 후행 연구에는 실무 현장에서의 MTPE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프로젝트에서 발췌한 예시가 추가되었다. 오류 유형에 대한 상세 예시 외에도 프리에디팅(pre-editing), 사전제작(pre-production) 공정 등 포스트에디터에 국한되지 않고, 프로젝트 매니저 외 현업 종사자들과 같은 실무진들을 위한 개념 정의도 추가되었다.

업계뿐 아니라 학계 역시 기계번역 분야를 단순 위기로 치부하기보다,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모습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현지화 업계는 우수한 재원을 현장으로 유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계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여하거나 산학협력에 기반한 학회 활동을 수행하거나 자체적으로 컨퍼런스를 주최함으로써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학계 역시 현지화 시장의 트렌드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업계와 연계하여 학생과 교강사 대상 교육 활동을 수행하거나 학술대회를 주최하여 현지화 업계 실무진들과 번역 재원을 연결해주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기회를 찾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자 ‘상생’이라는 모티브로 시작된 MTPE 스타일 가이드 연구는 향후 LSP에게는 기계번역에 대한 한층 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사와의 적절한 협의를 도출해내는 공통 표준으로, 번역 재원들에게는 실무자 입장에서 현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개념과 방법을 익히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길 희망한다. 또한, 현지화 업계에 진출하고자 하는 재원들이 MTPE 스타일 가이드 내 수록된 LSP의 실제 프로젝트 사례를 간접 체험함으로써 현업 시장에서의 적응 속도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IT 번역 스타일 가이드, MTPE 스타일 가이드는 현업 종사자들과 번역 재원들에게 필요한 공통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시작점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이들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지화 서비스 분야에 관한 지침 연구와 활동이 활발히 이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제 표준화 기구 ISO 18587:2017(en) Translation services -- Post-editing of machine translation Output -- Requirements
- 국제 표준화 기구 ISO 17100:2015(en) Translation services -- Post-editing of machine translation Output -- Requirements
- MTPE 스타일 가이드. https://www.facebook.com/groups/kigo_styleguide
- Lommel, A. R. and DePalma, D. A. (2016). Post-editing goes mainstream, How LSPs use MT to meet client demands, CSA(Common Sense Advisory)
- DePalma, D. A. (2016a). Post-edited machine translation defined. CSA(Common Sense Advisory)
- DePalma, D. A. (2016b). What post-edited machine translation costs. CSA(Common Sense Advisory)
- DePalma, D. A. (2016c). Machine translation: Which types works best?. CSA(Common Sense Advisory)
- Ray, R. (2016). Every LSP needs to consider post-edited MT. CSA(Common Sense Advisory)

남보리

한샘글로벌 랭귀지서비스팀 차장

bolee.nam@hansem.com

관심분야: 현지화,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스타일 가이드, 산학협력

논문투고일: 2020년 12월 31일

심사완료일: 2020년 1월 26일

게재확정일: 2020년 2월 23일

번역사회학 개관: 피에르 부르디외의 사회학 이론을 기반으로

이 영 훈
(고려대)

Yi, Yeong-Houn. Outline of a Sociology of Translation: on the basis of Pierre Bourdieu's Theory of Sociology

This article introduces a sociology of translation informed by the ideas of Pierre Bourdieu. Founded on a theory of practice, the sociology of translation may be defined as a theory of translation practice. Bourdieu's sociology thus allows for an integration of translation practice into his heuristic model of society and social practice. This article discusses also Bourdieu's key concepts - habitus, field, capital, illusio - and analyses briefly the first Korean translation of *Le deuxième sexe* by Simone de Beauvoir in order to explore how Bourdieu's concepts may be made to work empirically within translation research.

- ▶ Key Words: Habitus of the Translator, Pierre Bourdieu, Sociology of Translation, Translation Field, Translation Practice
- ▶ 키워드: 번역가의 아비투스, 번역사회학, 번역실천, 번역장, 피에르 부르디외

1. 들어가는 글

서구의 원로 번역학자 중 한 사람인 앤드류 체스터만(Andrew Chesterman)은 최근 한 논문(Chesterman, 2019)에서 서구 번역학이 1992년 국제학술대회¹⁾를 통해 ‘학제 간 학문(interdiscipline)’으로 천명된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여러 인접 학문들과의 교류를 통해 명확한 구심점 없이 매우 이질적이고 다양한 방면으로 끊임없는 파편화(fragmentation) 과정을 겪어 온 것으로 파악하였다. 체스터만에 의하면, 여타 학문의 일반적 발전 과정과 유사한 서구 번역학의 이러한 전개 양상은 여러 종류의 번역 실천, 연구 문제, 신기술의 부상과 더불어, 연구 대상에 대한 상이한 인식론적·존재론적 가정들의 결과로서, 오늘날 서구 번역학의 4대 중심, 즉 언어학적, 문화적, 인지적, 사회학적 영역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가운데 우리의 관심사인 사회학적 영역은, 체스터만이 정리한 바(pp. 13-14)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번역가가 프로젝트 매니저, 교정교열자, 동료 번역가, 고객 등과 팀을 이루어 작업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따라서 번역 작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주체들간의 소통, 번역가의 주체성(자율성, 권력, 가시성 등), 번역가의 경제적 대우 및 작업 조건, 번역가의 직무 윤리와 번역 상품(translation product)의 품질을 비롯하여 국제 번역 시장, 번역의 경제성, 통번역가의 전문화, 사회적 지위 및 제도화(인정 시스템, 계약 약관, 요율 등), 비전문번역(지역사회 통번역, 팬번역 등), 번역정책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인문학의 일원으로서의 번역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은 경험적인 연구를 지향하며 사회학에서 이론적 개념들과 데이터 수집 및 연구 방법을 차용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1) Translation Studies Congress “Translation studies — an interdiscipline”, Vienna, 9-12 September 1992.

사회학적 접근은 번역에 특정 자질이나 자질들의 조합이 나타날 때 이를 단순히 번역가의 두뇌 속의 일로 파악하기 보다는 이를 넘어서 가용 자원, 교정과정, 원천 텍스트의 성질 등 외부 요인들에 주목하며, 최근에는 테크놀로지의 급격한 사용 증가로 인해 기계 본위의 번역 작업 환경이 번역 품질 및 번역가의 정체성 의식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고는 번역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들 가운데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 1930-2002)의 사회학 이론을 기반으로 한 ‘번역사회학(sociology of translation)’에 대한 개설 및 간략한 관련 연구 사례의 소개를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번역을 단순한 언어적 전환으로 간주하여 텍스트 안에서만 번역을 기술하고 설명하던 언어학적·문학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텍스트 밖, 즉 생활 세계(Life World)²⁾로 시각을 돌려 언어 맥락이 아닌 상황 맥락에서 번역과정과 그 결과를 관찰하고 설명하려는 의도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사회 대(對) 개인 간의 대립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실천으로 번역을 이해하는 한편, 언어학적 문제 의식에 함몰되어 온 번역학의 자기 반성과 분과학문으로서의 번역학의 자율성 및 학제성에 대한 성찰을 추동하려는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용어 문제부터 거론할 필요가 있다. 과연 ‘번역사회학’인가 ‘사회번역학’인가? 하는 문제이다. 인접 학문인 언어학과 관련해서도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s)’과 ‘언어사회

2) ‘생활 세계(Life World)’는 독일의 현상학자 에드문트 후설(Edmund Husserl, 1859 - 1938)의 개념으로 인간이 자신의 감각과 마음을 통해 지각하는 세계를 말한다. 인간은 생활 세계를 있는 그대로의 실제 세계로 간주하여 이를 당연시 여기는데, 이 점에서 현상학은 인간이 어떻게 외부 세계에 대한 공통의 그림을 만들어내고 이에 입각하여 행동하는지에 대한 성찰을 추구한다 (Tuyleneov, 2014, p. 155).

학(sociology of language)’이 혼용되거나 구분되는데, 둘을 구분하는 시각에서는 ‘사회언어학’은 언어학의 영역에 속하고 ‘언어사회학’은 사회학에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문학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을 둘러싸고, 사회학 내에서는 ‘문학사회학(sociologie de la littérature)’으로 불리는 분야가 문학 비평 및 이론 내에서는 ‘사회비평(socio-critique)’으로 수렴되는 양상이다. 그렇다면 번역학에서는 사정이 어떠한가? 서구 번역학계에서는 지금까지 번역에 대한 사회적 접근들을 가리키기 위해 4,5가지의 다양한 용어를 제안한 바 있다. 먼저 서구번역학의 지형도를 최초로 제시한 제임스 홈즈(James S. Holmes)는 ‘Translation Sociology’와 ‘Socio-translation Studies’(Holmes, 1972)를 동시에 제기했고, 이어서 부르디외의 사회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번역 연구에 가장 많은 성과를 낸 장-마르크 구앙빅(Jean-Marc Gouanvic)은 프랑스어 ‘Sociologie de la traduction’(Gouanvic 1994)를, 본격적인 사회학적 번역 연구에 다소 거리를 두는 앤소니 뎀(Anthony Pym)은 ‘Sociology of Translators’(Pym 2004)를, 번역학의 통섭적 연구를 주창한 앤드류 체스터만은 ‘Translator Studies’(Chesterman, 2007)를, 끝으로 번역학의 다양한 주제를 섭렵해온 이브 강비에(Yves Gambier)는 ‘Socio-traductologie’(Gambier 2007)를 각기 고안해냈다. 서구에서는 번역의 사회학적 접근이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지칭되는 반면, 아직 번역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이 낮은 국내에서는 현재로서는 ‘번역사회학’(임진, 2019)이란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본고에서도 이 명칭을 채택하고자 한다.

서구 번역학계에서 번역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에 대한 명칭 상의 혼란과 더불어 제기되는 문제는 번역사회학이 번역학 내에서 갖게되는 위상과 관련이 있다. 즉, 번역사회학은 번역학의 하위분야인가 아니면 번

역학의 이론적 변천 과정에서 태동한 하나의 연구 패러다임에 불과한가? 여기에 대해 제임스 홈즈는 서구 현대번역학의 청사진을 처음으로 제시한 1972년 발표에서 ‘Translation Sociology’ 또는 ‘Socio-translation Studies’를 기능-지향적 기술번역학(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의 합당한 하위 영역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해 수용 국가의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번역을 연구하는, 즉 텍스트 보다는 컨텍스트를 연구하는 역할을 부여하였다.

Function-oriented DTS is not interested in the description of translations in themselves, but in the description of their function in the recipient social-cultural situation: it is a study of contexts rather than texts. Pursuing such questions as which texts were (and, often as important, were not) translated at certain time in a certain place, and what influences were exerted in consequence, this area of research is one that has attracted less concentrated attention than the area just mentioned, though it is often introduced as a kind of sub-theme or counter-theme in histories of translations and literary histories. Greater emphasis on it could lead to the development of a field of translation sociology (or - less felicitous but more accurate, since it is a legitimate area of translation studies as well as also sociology - socio-translation studies).

(Holmes, 1972(1994), p. 72)

한편, 현대 서구 번역학의 역사를 기술한 마리 스넬-혼비(Mary Snell-Hornby)는 번역학 내에서 부상 중인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들 가운데 번역 윤리와 관련되며 번역가의 책무 뿐만 아니라 사회 내의 지위 및 역할과 관련된 ‘사회학적 전환(sociological turn)’을 지목한 바 있다.

In her recent study (2005) Wolf detects a “sociological turn” at present under way in Translation Studies. As the topic has been around for so long, it is debatable whether it is now creating a new paradigm in the discipline: at all events translation sociology is a welcome alternative to the purely linguistic approach, and it is an issue of immense importance with a wealth of material for future studies. It also connects up with the problem of ethics addressed under 3.1.1, not only as regards the responsibility of the translator, but also his/her status and role in society.

(Snell-Hornby, 2006, p. 172)

서구에서 번역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가 대동하게 된데는 1980년대 일어났던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이라 불리우는 일련의 연구 경향이 큰 역할을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타마르 에벤-조하르(Itamar Even-Zohar)가 주도한 다중체계 이론(Polysystem Theory), 기테온 투리가 이끈 조작학과(Manipulation School) 등을 중심으로 번역 생산을 규율하는 사회 규범 및 문화 체계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었고,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e), 페미니즘(feminisme), 사회참여 운동(activism) 등에 근거하여 문화간 충돌(cultural encounter)의 관점에서 번역생산물과 번역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서구 번역학계 내에 번역 행위가 발생하는 사회적 공간, 번역물의 생산과정, 즉 번역 공정(process of the translation production)에 참여하는 번역 주체들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오늘날 번역사회학이란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연구의 탄생 과정을 추적해보면, 1990년대에 번역학과 사회학 사이의 접촉 및 연계가 확대되고 강화되었고, 21세기 초부터 번역사회학을 체계적 구축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번역사회학의 토대를 쌓은 연구

성과들로는 다니엘 시메오니(Daniel Simeoni, 1998, 2001), 조앙 엘브롱(Johan Heilbron, 1999), 장-마르크 구앙빅(Jean-Marc Gouanvic 1999), 테오 헤르만스(Theo Hermans, 1999) 등의 개별 시도들과 부르디외 계열의 사회학 학술지인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의 번역 특집호³⁾, 오스트리아의 그라츠 대학에서 열린 최초의 번역사회학 국제 학술대회⁴⁾를 꼽을 수 있다.

번역사회학이라 부를 수 있는 일련의 연구 경향들은 독립된 학파를 구성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크게 다음의 세 부류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Buzelin, 2013). 먼저, 피에르 부르디외의 사회 실천 이론(theory of social practice)에 의거한 번역가 연구는 다니엘 시메오니의 선구적 연구(Simeoni, 1998) 이후 최근 번역사회학 연구의 대세를 이룬다. 한편, 독일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의 사회체계 이론(social system theory)에 의거한 번역 체계 연구(Theo Hermans, 1999; Sergey Tyulenev, 2012; Maricel Botha, 2020)도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왔다. 또한 프랑스 출신의 사회학자로서 영미권에서 더 널리 소개된 부뤼노 라투르(Bruno Latour)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 Network Theory⁵⁾)에 의거한 번역물 생산과정 및 절차 연구도 독립적으로(Wenyan Luo, 2020) 또는 부르디외 이론과의 융합(Hélène Buzelin, 2005; Szu-Wen Kung, 2015)을 도모하며 수행된 바 있다. 이상의 세 가지 번역사회학 연구 경향

3) Vol. 144, septembre 2002. “Traductions : les échanges littéraires internationaux”

4) International Conference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as a Social Practice”, University of Graz, May 2005

5) 이 이론은 보통 줄여서 ‘ANT’로 불린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라투르 계열의 사회학자들 중 일부(Callon 1986)는 자신들의 사회학 연구를 ‘Sociology of Translation’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이다.

들의 기저에는 다음의 공통된 인식론적 전제들이 깔려있다. 바로 번역은 본질적으로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행되는 사회 활동(social activity)이며, 번역 주체와 번역 활동은 사회 구성원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반영하는(constructed)’ 한편,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촉발하고 ‘형성하기(constructing)’도 한다는 생각들이다.

2. 부르디외의 사회학 이론과 연구

부르디외는 철학 공부로 시작해서 사회학으로 전향한 프랑스의 학자로 일찍이 프랑스 최고의 석학들이 전문 지식인 및 일반 대중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콜레주 드 프랑스(Collège de France)의 교수직을 역임한 바 있으며, 20세기 최고의 사회학자 중 한 사람으로 추앙받은 인물이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사회에는 한편으로 인간 주체들의 의식이나 의지와는 독립된 구조들이 존재하여 이 주체들의 실천과 재현들을 이끌고 제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간 주체들은 사회 구조의 제약 하에서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 행동하며 사회 현상을 구축하기도 한다⁶⁾. 더구나 부르디외에게 사회는 서열화되고 차별화된 공간으로서, 내재되어 있고 일상적 실천에 깊이 뿌리박힌 권력 관계가 무의식적으로 재생산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그에게 사회학은 다양한 사회적 맥락(교육, 미디어, 학계, 예술과 문학 등) 속에서 지배-피지배 관계의 기저를 이루는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이었다.

부르디외에게 모든 사회적 실천은 나름의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6) 부르디외는 이같은 사회 구조와 주체라는 사회 형성(social genesis)의 이중적 차원을 문법과 언어의 실질적 사용 사이의 관계에 건주어 설명하였다.

데, 그렇다고 모든 주체가 자신의 실천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반드시 의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해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경제적 이득에 한정되지 않으며 사회적 인정, 인적 네트워크, 기회적 요소, 사회·문화적 지위 등을 겨냥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모든 사회 주체들은 의도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들이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동기를 부여하는 모종의 이해관계를 숨기고 있다고 부르디외는 주장한다.

부르디외의 사회학은 성찰의 사회학(reflexive sociology)으로도 규정될 수 있는데, 이는 사회에 대한 어떤 종류의 관찰도 탈사회적, 즉 사회 구조와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학자는 그 연구 대상과 마찬가지로 사회 구조 속의 주체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학 연구는 결코 완전히 객관적일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학자는 연구 주제의 선택, 관찰 지점, 사회적인 것을 구축하는 방식 등을 추동하는 나름의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르디외의 사회학 이론의 뼈대를 이루는 주요 개념들은 서구 지성사에서 이어져온 그리스어 및 라틴어 학술용어에서 비롯된 것이 많은데, 대표적인 개념어들과 그 정의들은 다음과 같다.

장(field)⁷⁾: 부르디외는 현대 사회가 종교, 문화, 학술 등과 같은 고도로 이질적이고 상이한 실천 영역들로 분화되어 있으며, 그 중 비교적 자율적인 실천 영역들을 ‘장(場)’이라 부른다. 장은 그 안에서 다양한 개

7) 번역사회학자들 사이에는 번역장(translation field)의 독립적 존재를 인정하는 입장들(Gouanvic, Sela-Sheffy)과 번역을 자율적인 실천이라기보다는 출판장(publishing field)과 문학연구장(literary academic field)에 종속된 것으로 간주하는 입장들(Heilbron, Sapiro)이 나뉜다. 특히, 후자의 경우 번역 실천은 출판장과 문학연구장으로부터 그 가치, 규범, 규칙 등을 빌어 오는 것으로 상정된다.

인 및 제도 세력 간의 대결이 벌어지고, 상징 및 물질 재화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무대이자, 사회 내에서 권력 관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공간을 가리킨다. 장에서 활동하는 주체들(agents)은 일련의 성문화된 규칙(nomos), 불문율로서의 통념(doxa), 관련 어휘 및 담화 패턴(logos) 등을 공유하며, 각 장에는 고유한 다툼의 대상(stakes) 및 이해관계(interests)가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 내 활동 공간으로서의 장들은 부르디외가 권력장(field of power)이라고 부르는 공통의 사회 공간에 속해있어 장마다 그 영향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지속적인 투쟁이 이루어진다.

상징자본(symbolic capital): ‘자본’ 개념은 각 장이 어떻게 작동하며, 장 내에서 주체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이해하게 해준다. 부르디외는 돈과 다른 물질적 신용수단을 가리키는 ‘경제 자본(economic capital)’ 개념을 확대 및 원용하여 각종 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자원 및 상징적 자원들의 교환을 포괄함으로써 개인의 실적이 축적된 결과 각종(경제, 문화, 사회) 재화가 특정 장 내에서 주체의 자질이나 특징으로 인정되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부르디외는 한편으론 자본의 범주를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상징자본으로 사분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상징자본’ 개념을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은폐되고 심지어 ‘사심 없음(disinterestedness)’으로 나타나는 각종 비경제적 자본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아비투스(habitus): 아비투스 개념은 습관(habit)과 가까우면서도 성장 과정과 사회 활동을 통해 습득되고, 각종 사회 공간 내에서 형성되거나 조절되며, 육화되고(embodied) 내면화된(internalized) 개인의 기질(disposition)이나 성향(tendency)을 나타낸다. 철학적 기원을 거쳐 심리학 및 의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어 온 이 개념은 “사회에서 인간의 행동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제어될 수 있는가?”라는 부르디외의 계속된 물음에서 비롯된 것이며, 서구 사회학 내의 개인 대(對) 사회라는 고질적인 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안된 것이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개인의 행동은 그의 과거 경험(성장 및 교육)과 현재 상황들(실천 환경 및 그 구성원들과의 관계)에 의해 형성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비투스(habitus)가 개인의 현재 실천을 형성하는데 작용하여 사회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결국, 아비투스는 사회적으로 구조화되면서(structured) 동시에 사회를 구조화하는(structuring) 요인인 것이다.

일루시오(illusio): 일루시오는 장의 필요성 및 작동방식에 대한 사회 주체들 간의 암묵적 동의로서 장 내의 경쟁에 참여하게 하는 동인이자, 장에 대한 일반적 관심을 가리킨다. 한편, 이 개념은 장 내의 주체들이 스스로 환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며, 문학 및 예술 작품에 대해 독자를 몰입하게 하거나 관심을 갖게 만드는 작품의 구조나 내적 특성들과도 관련이 된다. 사회 주체들은 바로 이 일루시오 덕분에 각 장의 현실에 대한 의심이나 기본 규칙들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장 안에서 벌어지는 ‘게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부르디외에게 사회적 실천은 주체와 장의 결합에 의해 생성되는데, 각 주체는 자신만의 아비투스와 상징자본만을 갖추고 있는 반면, 장은 통념, 법, 언어, 일루시오 외에도 고유한 아비투스 및 자본들로 구성된다. 한편, 부르디외 사회학의 연구 영역은 한 국가 내 문화 및 경제 생산의 장, 광의의 사회적 환경, 일상적 소비, 라이프 스타일, 사회적 선호 등의 상황을 아우른다고 볼 수 있다.

3. 부르디외식 번역사회학 연구 개설

이제 부르디외 사회학 이론과 그 주요 개념들을 바탕으로 번역을 정의해보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즉, 번역(translation)은 번역가가 번역장에서 실행하는 사회적 실천이며, 번역가(translator)는 다른 장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번역장의 일원이다. 한편, 우리와 같은 번역학자(translation scholar)는 번역장의 관찰자이자 번역학장(field of translation studies)의 주체로 간주될 수 있다.

번역사회학 연구는 일반적인 사회학 연구가 그러하듯이 경험적 자료들의 수집에 주력하며, 세 가지 차원에서 자료 분석을 수행한다. 즉, 특정 번역 주체나 번역 실천의 복잡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미시적 분석, 다양한 유형의 번역 주체들 간 또는 번역 실천들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중시적 분석, 끝으로 국가나 세계 단위의 번역 출판 및 순환 체계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는 거시적 분석이 바로 그것이다.

번역사회학의 주요 연구 방법은 역시 사회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인터뷰, 설문, 관찰 등을 꼽는다. 보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구조화된 인터뷰와 관찰, 설문 등의 결과에 대한 통계 및 계량화된 내용 분석 등이 양적 분석 방법에 해당되는 반면, 반구조화된 또는 비구조화된 인터뷰, 포커스 그룹과의 대담, 참여 관찰에서 비롯된 담화 분석이 질적 분석 방법에 속한다. 그런데 번역과 관련된 사회 현상의 복잡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번역사회학 연구가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의 조화를 추구하게 된다.

번역사회학의 연구 영역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진다. 먼저, 번역을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으로 보는 관점과 그에 따른 연구 영역들로는, 문화상품(cultural products)의 관점에서 번역물의 출판, 유통, 소비에 대한 분석, 사회 주체(social agent)로서의 번역가의 사회적 지위, 활동영역,

교육, 전문화, 인증, 네트워크 등에 관한 분석, 생산과정(production process)의 시각에서 번역물의 생산절차, 번역생산의 인적 구성, 번역생산 정책 등에 관한 분석, 문화전이(cultural transfer)의 차원에서 국제적 번역생산 과정에서 발견되는 불평등, 관련 두 국가나 언어 사이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역학관계, 국제적 번역 생산 및 유통 주체 등에 관한 분석 등이 있다. 다음으로, 일반 사회학의 연구 대상에 따른 연구 영역 들에는 소명, 업무, 직업으로서의 번역에 대한 탐구, 번역 제도로서의 회사, 정부, 언론기관, 종교단체, 출판사 등에 관한 탐구, 문화상품의 순환 공간으로서의 번역출판 시장과 세계 출판시장에 관한 탐구, 분과 학문으로서의 번역학에 관한 사회학적 탐구 등이 포함된다.

한편, 부르디외식 번역사회학은 크게 문학 번역의 사회학 연구들과 일반 번역의 사회학 연구들로 분기되어왔다. 문학번역의 사회학은 부르디외의 문학장(literary field) 모형에 대한 문학 번역과 문학 번역가들의 적합성과 문학번역장의 운용을 탐구했는데 구앙빅, 사피로(Gisèle Sapiro), 셀라-쉐피(Rakekfet Sela-Sheffy) 등이 그 대표적 연구자들이다. 반면, 시메오니(Daniel Simeoni), 울프(Michaela Wolf), 잉기에리(Moira Inghilleri) 등이 주도해 온 일반 번역의 사회학은 일반적 번역 실천과 번역 규범의 이해를 위해 아비투스과 장 개념의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발표된 부르디외식 번역사회학 연구들 가운데 그 대표 저작들을 꼽자면, 무엇보다 가장 초기부터 부르디외의 장과 아비투스 개념을 문학번역에 적용해 온 구앙빅의 일련의 저술들(Sociologie de la traduction 1999, Pratique sociale de la traduction 2007, Sociologie de l'adaptation et de la traduction 2014, Hard-boiled fiction et Série noire 2018), 세계 문학장의 구축에 번역이 기여한 바를 분석한 카사노바

(Pascale Casanova)의 저술(La république mondiale des lettres, 1999), 국제 출판계에서의 번역 출판물의 순화를 분석한 사피로의 저술(Translatio. Le marché de la traduction en France à l'heure de la mondialisation 2008) 등이 있다. 한편, 최근에는 부르디외 이론의 심층적이고 다양화된 응용을 추구하는 몇몇 박사논문들과 논문 모음집(Yu-Ling Chung, Translation and fantasy literature in Taiwan: Translators as cultural brokers and social networkers, 2013; Gisella M. Vorderobermeier (Ed.), Remapping habitus in Translation Studies, 2014; Esmaeil Haddadian-Moghaddam, Literary translation in modern Iran: A sociological study, 2014; Sameh Hanna, Bourdieu in translation studies: the socio-cultural dynamics of Shakespeare translation in Egypt, 2016) 등이 주목할 만하다.

4. 부르디외식 번역사회학의 시범적 적용 사례

이제부터 부르디외식 번역사회학의 구체적 적용 사례를 간략하게나마 보여주기 위해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의 대표작 『제2의 성Le Deuxième sexe』의 한국어 초역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우선 소개하자면, 『제2의 성』은 서구에서 ‘페미니즘의 경전(Bible of Feminism)’으로 일컬어지는 중요한 작품으로 프랑스에서는 1949년에 출간되었고, 한국에서는 1955년 이용호에 의해 초역⁸⁾되었는데, 이용호의 번역은 독일(1951), 미국(1953), 일본(1953), 아르헨티나(1954)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빨리 번역된 결과였다. 한편, 이용

8) 『제2의 성Le Deuxième sexe』에 대한 이용호의 한국어 초역에 대해서는 조혜란의 2012년 석사논문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호의 1955년 번역은 원저의 제2권 1부만을 번역한 부분 역이며, 이후 1973년 조홍식에 의해 처음으로 완역본이 출간되었고, 1995년 강명희, 2009년 이희영에 의해 전권에 대한 재번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제2의 성Le Deuxième sexe』의 주요 논지를 살펴보면, 남자는 주체이며 절대이지만 여자는 객체이며 타자로 간주된다. 또한, 여성성은 우리 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여자는 남자에 비해 매우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는데, 모든 조건이 평등하다 할지라도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여겨진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1949년 『제2의 성Le Deuxième sexe』이 출간되었을 때 호평과 혹평으로 대중 독자와 비평가의 반응이 나뉘었고, 책에 담긴 파격적인 주장(모성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 등) 때문에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 결과 바티칸의 금서 목록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소련과 프랑스 공산당에 의해서도 혹독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논란 덕분인지 『제2의 성』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게 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여러 언어로 계속 번역되었다.

『제2의 성Le Deuxième sexe』을 한국어로 초역한 이용호(李庸濩)는 본인의 번역서 말미에 제시된 역자 소개에 따르면 1919년 9월30일 김포 출생으로, 따라서 일제 강점기를 경험한, 다시 말해 일본어를 자유롭게 구사한 세대에 속한다. 그는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연희전문 문과에 1939년 4월에 입학하여 1942년 9월에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스스로 정신분석학을 전공했다고 적고 있다. 그런데 이용호가 졸업한 연희전문문의 후신인 연세대학교에 심리학과가 창립된 것이 1981년이므로, 독학 내지 교양수업을 통해 정신분석에 입문한 것이 아닐까 사료된다. 어쨌든 이용호는 국내 최초로 1958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입문』,

『꿈의 해석』을 번역하였고, 무엇보다 이 점이 우리가 한국 번역사에서 이용호를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더구나 그는 펜클럽 회원으로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기에 당대에 작가 내지 저술가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그가 역자 소개에 제시한 본인의 주소(서울 종로구 통인동 136의 8)가 지금은 사라진 백조출판사의 주소와 일치하는데다가 백조출판사에서 출간한 다른 역서의 출판정보에는 발행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므로, 적어도 백조출판사의 공동발행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용호는 1954년 발간된 『이습우화』, 『행복한 왕자』부터 1983년에 나온 『한국동란』까지 30년 가까이 백조출판사에서 수많은 작품을 번역한 전문번역가였다. 그의 주된 번역 업적으로는 프로이트(Sigmund Freud), 메닝거(Karl A. Menninger), 프롬(Erich Fromm)의 정신분석학 서적들과 카프리오(Frank S. Caprio)의 성의학서들의 번역을 들 수 있으며, 이 외에도 R. 하아트가 감수한 『제2차 세계대전 시리즈』(20권), 요시카와 에이지(吉川英治)의 『三國誌』(10권) 등을 번역한 바 있다. 더구나 그는 영어 및 독일어 학습서, 성교육서, 자기 개발서 등을 저술한 저술가였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이용호의 『제2의 성Le Deuxième sexe』번역은 1955년 Le Deuxième sexe의 2권 1부(Formation)를 『第二의 性 - 第1卷, 女子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로 번역하여 백조서점에서 간행한 것이다. 원래 계획은 1. 『女子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2. 『女子는 어떻게 사는가』, 3. 『自由로운 女子』, 4. 『女子의 歷史와 運命』, 5. 『文學에 나타난 女子』 등 전5권으로 간행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이용호는 『第二의 性 - 第1卷, 女子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를 “女性이 쓴 戀愛論, 女性論, 女性史”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책은 국내에 처음으로 번역된 보브

와르의 저작이었다. 이 번역서의 해설 부분에서 이용호는 하워드 파슬리(Howard M. Parshley)의 영어 번역을 중역⁹⁾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1953년 일본 新潮文庫에서 간행된 이쿠시마 료-이치(生島遼一)의 『第二の性 1-5』 중 제1권(女はうしてつくれる)과 2,3,5권을 중역한 것이 확인된다.

한편, 이용호의 『제2의 성Le Deuxième sexe』 번역이 발간된 1955년에 白潮출판사가 간행한 다른 도서들은 프랭크 카프리오의 『完全한 女性(The sexually adequate female)』, 다니엘 데포(Daniel Defoe)의 『Robinson Crusoe』, 칼 메닝거의 『愛憎(Love against hate)』인데 모두 이용호가 번역한 작품들이었다. 다른 한편, 이용호는 1955년에 민중서관에서 카프리오의 『完全한 男性(The sexually adequate Male)』과 메닝거의 『人間の 마음(The human mind)』도 번역 출판한 바 있다.

『제2의 성Le Deuxième sexe』 한국어 초역이 출판된 1955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주목할 만한 사건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8월 13일 서울 적십자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성전환 수술이 시행되었고, 8월 18일에 일본과 경제 관계를 단절하였으며, 9월 1일에 전국 단위의 인구 조사를 사상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10월 12일 해리 홀트와 버다 홀트 부부가 한국인 전쟁고아 8명을 입양하고 4명을 미국의 다른 부모에게 입양을 주선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 특히, 일본과 경제 관계를 단절할 사건은 왜 이용호가 일본어 번역을 바탕으로 『제2의 성Le Deuxième sexe』를 중역하였음에도 파슬리의 영어 번역으로부터 중역하였다고 밝히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해준다. 또한, 최초의 성전환 수술 시행과 해외 입양이라는 사건 또한 여성의 성과 모성에 대한 책으로 간

9) “臺本으로는 原書の 入手難으로 미국版 The Second Sex (H.M. Parshley 譯. A. Knopf 社 千九百五十三年 版行)을 사용했음을 덧붙인다” - 解説

주된 『제2의 성Le Deuxième sexe』이 당시 한국 사회에서 수용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白潮출판사는 『제2의 성Le Deuxième sexe』 한국어 번역에 대한 독자의 후기를 다음과 같이 실고 있는데 대체로 여성의 숙명을 강조하는 독서평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2의 성Le Deuxième sexe』 원작과 작가가 지향했던 여성의 억압된 삶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는 번역을 통해 제대로 전달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성사회가 여자로 만든다. 소녀시대부터 <열등자>로 천시되었다가 여자로 전락하고, 이윽고 젊은 여자의 숙명인 결혼생활에 들어가 한 남자에 제공되어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마침내 할머니가 되어 그 일생을 완성할 때까지의 굴욕적 상황과 비극이. 여성만이 간직하는 영원한 역사가 완전히 해부되어 “모빠상”의 『여자의 일생』보다도 재미있다.” 백조서점

“이미 다른 나라들에 많이 소개된 이 책이 한국에서도 번역 출판된다니 반가운 일이다. 세계 어느 나라 여성보다도 생활, 애정, 그 운명에 있어, 숨김이 많고 비밀 속에서 고민만 하다가, 아무 해결도 보지 못한 채 사라져 가는 한국여성에게는 이 책이 진실한 벗으로서 과거를 헤쳐 보는 열쇠가 될 줄 믿는다. 모든 점에서 제2의 차례에서, 그 인생을 살고 있는 한국여성에게 이 책이 많이 읽혀지길 바라 마지않는다.” 모운숙

“.....방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읽었습니다..... 아무리 참아도 일어나는 울분, 슬픔, 모든 여성이 읽었으면 합니다. 그녀가 걸어 갈 숙명의 길이 거기 있고, 그녀가 걸어온 눈물 어린 길이 거기 있기에.....”

독자 이희경

이제 부르디외식 번역사회학의 관점에서 1955년 시몬 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Le Deuxième sexe』을 국내에서 초역한 번역가 이용호의 정체성과 그 번역 실천을 간략하게나마 정리해보기로 하자. 이용호는 일

제시대 태생으로, 프로이트, 프롬, 카프리오 등을 번역한 경력이 있는 출판발행인 겸 번역가의 아버투스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가 활동한 사회실천의 장은 따라서 출판장과 번역장으로 나누어진다. 이용호가 획득하고 유지해온 상징 자본에는 스스로에게 부여한 정신분석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일본어 및 영어 해독능력에서 비롯된 언어 자본, 연희전문 출신이라는 엘리트 의식 등이 포함되며, 이용호가 시몬 드 보브와르의 『제2의 性Le Deuxième sexe』을 국내 초역함으로써 국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일루시오는 여성의 숙명에 대한 공감과 성의학적 지식 및 성적 판타지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 나가는 글

부르디외의 사회학 이론은 1990년대 이후 많은 관심 속에서 여러 번역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론화되고 실제 번역 및 번역가의 사례에 대한 적용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없진 않았는데, 무엇보다 텍스트 밖의 생활 세계에 집중하다 보니 번역 실천의 산물로서의 번역텍스트 자체에 대한 무관심을 지적받기도 하였고, 두 문화간 교섭으로서의 번역이 가진 문화상호적(intercultural) 특성에 대한 소홀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부르디외식 번역사회학은 지금까지 도외시되어 온 글로벌 시장에서의 번역생산에 대한 연구들을 촉발하고, 번역학의 사회적 자율성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번역학의 제도화를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번역학의 사회학(sociology of translation studies)이라는 메타 연구 분야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명선혜 (2020) 「전문 번역사의 MTPE 인식 전환 가능성 모색 - 아비투스 개념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1(3): 37-62.
- 이상길 (2011) 「학술번역과 지식수용, 혹은 ‘이론은 어떻게 여행하는가?’ 피에르 부르디외의 경우」, 『언론과 사회』 19(4): 232-289.
- 이영훈, 유미향, 박정윤 (2012) 「번역가의 젠더와 성적 표현의 번역: 시몬 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Le Deuxième sexe)』 번역본 비교」, 『번역학연구』 13(5): 143-173.
- 임진 (2019) 「어느 실용 번역가의 아비투스 연구: 바깥텍스트와 번역결과물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4(1): 167-199.
- 조혜란 (2012) 『제2의 성(Le Deuxième sexe)』의 초기 한국어 번역과 수용 - 이용호의 1955년, 1964년 번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lommaert, J. (2005). Bourdieu the Ethnographer. *The Translator*, 11(2), 219-236.
- Bourdieu, P. (2002). Les conditions sociales de la circulation internationale des idées,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145, 3-8.
- Bourdieu, P. (2008). A conservative revolution in publishing. *Translation Studies*, 1(2), 123-153.
- Buzelin, H. (2013). Sociology and Translation Studies. In C. Millán & F. Bartrina,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pp. 186-200).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Callon, M. (1986). Some elements of a sociology of translation. In J. Law (Ed.), *Power, action and belief: a new sociology of knowledge?* (pp. 196-223). London: Routledge.

- Casanova, P. (1999). *La république mondiale des lettres*. Paris: Seuil.
- Cazier, J.-P. (2006). *Abécédaire de Pierre Bourdieu*. Mons: Sils Maria.
- Chauviré, C. & Fontaine, O. (2003). *Le vocabulaire de Bourdieu*. Paris: Ellipses.
- Chesterman, A. (2009).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or Studies. *Hermes*, 4, 13-22.
- Chesterman, A. (2019). Consilience or fragmentation in Translation Studies today. *Slovo.ru: Baltic accent*, 10(1), 9-20.
- Chung, Y.-L. (2013). Translation and fantasy literature in Taiwan: Translators as cultural brokers and social networker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Gambier, Y. (2007). Y a-t-il place pour une socio-traductologie?. In M. Wolf & A. Fukari (eds.), *Constructing a Sociology of Transla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205-217.
- Gouanvic, J.-M. (1997). Pour une sociologie de la traduction: le cas de la littérature américaine traduite en France après la Seconde Guerre mondiale. In M. Snell-Hornby et al. (Eds.), *Translation a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pp. 33-44).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Gouanvic, J.-M. (1999). *Sociologie de la traduction. La science-fiction américaine dans l'espace culturel français des années 1950*. Arras: Artois Presses Université.
- Gouanvic, J.-M. (2002). The stakes of translation in literary fields.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3(2), 159-168.
- Gouanvic, J.-M. (2002). A model of structuralist constructivism in

- Translation Studies. In T. Hermans (Ed.), *Crosscultural Transgressions: Research Models in Translation Studies II* (pp. 93-102). Manchester: St. Jerome.
- Gouanvic, J.-M. (2005). A Bourdieusian theory of translation, or the coincidence of practical instances. field, 'habitus', capital and 'illusio'. *The Translator*, 11(2), 147-166.
- Gouanvic, J.-M. (2006). Au-delà de la pensée binaire en traductologie: esquisse d'une analyse sociologique des positions traductives en traduction littéraire. *TTR*, 19(1), 123-134 .
- Gouanvic, J.-M. (2007). Objectivation, réflexivité et traduction: Pour une re-lecture bourdieusienne de la traduction. In M. Wolf & A. Fukari (Eds.), *Constructing a sociology of translation* (pp. 79-92).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Gouanvic, J.-M. (2007). *Pratique sociale de la traduction : le roman réaliste américain dans le champ littéraire français (1920-1960)*. Arras: Artois Presses Université.
- Gouanvic, J.-M. (2010). Outline of a sociology of translation informed by the ideas of Bourdieu. *MonTI*, 2, 119-129.
- Gouanvic, J.-M. (2014). *Sociologie de l'adaptation et de la traduction : le roman d'aventures anglo-américain dans l'espace littéraire français pour les jeunes, 1826-1960*. Paris: Honoré Champion.
- Grenfell, M. (2008). *Pierre Bourdieu: Key concepts*. Durham: Acumen.
- Haddadian-Moghaddam, E. (2014). *Literary translation in modern Iran: A sociological study*.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Hanna, S. (2016). *Bourdieu in Translation Studies: The socio-cultural*

- dynamics of Shakespeare translation in Egyp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Heilbron, J. & Sapiro, G. (2002). La traduction littéraire, un objet sociologique.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144, 3-5.
- Holmes, J. S. (1994).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 In J. S. Holmes (Ed.), *Translated! : Papers on Literary Translation & Translation Studies* (pp. 67-80). Amsterdam: Rodopi, 2nd edition.
- Inghilleri, M. (2003). Habitus, field and discourse. Interpreting as a socially situated activity. *Target*, 15(2), 243 - 268.
- Inghilleri, M. (2005). The sociology of Bourdieu and the construction of the 'Object' i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The Translator*, 11(2), 125-145 .
- Sapiro, G. (dir.). (2008). *Translatio. Le marché de la traduction en France à l'heure de la mondialisation*. Paris: CNRS Editions.
- Sapiro, G. (2008). Translation and the field of publishing. A commentary on Pierre Bourdieu's 'A conservative revolution in publishing. *Translation Studies*, 1(2), 154-166.
- Sapiro, G. & Bustamante, M. (2009). Translation as a measure of international consecration. Mapping the world distribution of Bourdieu's books in translation. *Sociologica*, 2-3, 1-45.
- Sela-Sheffy, R. (2005). How to be a (recognized) translator. Rethinking habitus, norms, and the field of translation. *Target*, 17(1), 1-26.
- Simeoni, D. (1995). Translating and studying translation : The view from the agent. *Meta*, 40(3), 445-460.
- Simeoni, D. (1998). The pivotal status of the translator's habitus. *Target*,

10(1), 1-39.

- Simeoni, D. (2005). Translation and society. The emergence of a conceptual relationship. In P. St-Pierre & P. C. Kar (Eds.), In Translation. Reflections, refractions, transformations (pp. 3 - 14). Delhi: Pencraft International,
- Tyulenev, S. (2014). Translation and society: An introduc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Valero Garcés, C. & Gauthier Blasi, L. (2010). Bourdieu and public service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Towards a social theory in PSIT. MonTI, 2, 1-13.
- Vorderobermeier, G. M. (2014). Remapping habitus in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Rodopi.
- Wei Q. (2014). A sociology of translation: From text world to life world. Theory and Practice in Language Studies, 4(1), 88-92.
- Wolf, M. (2007). Bourdieu's rules of the game: An introspection into methodological questions of Translation Sociology. Matraga, 14(20), 130-145.
- Wolf, M. (2007). The location of the 'translation field'. Negotiating borderlines between Pierre Bourdieu and Homi Bhabha, In M. Wolf & A. Fukari (Eds.), Constructing a sociology of translation (pp. 109-119).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이영훈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erasme@korea.ac.kr

관심분야: 번역개념사, 번역비평, 번역사회학

논문투고일: 2020년 12월 31일

심사완료일: 2020년 2월 4일

게재확정일: 2020년 2월 23일

원격통역, 현 주소와 과제

이 현 경
(한국외대)

Lee, Hyunkyung. Remote Interpreting, its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This study illustrates the current status of remote interpreting and challenges it poses to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 market. Throughout the year 2020, the world has gone through the unexpected war against Covid-19 virus. Lots of lockdowns have been executed around the globe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virus. As a result of the lockdowns and restraints on overseas travel, most of the traditional face-to-face international conferences have been canceled. As the war against the Covid-19 has turned into a long-term game, on-line conferences starts to take roots as the major mode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s. Interpreters and interpretation service providers and technical staffs had to cope with the unexpected and unprepared situation of remote interpretation which has not been practiced much in the conference settings in Korea. This paper tries to explore what has not been considered and what needs to be done regarding the remote interpreting from the perspectives of an interpreter, an interpretation service provider(agency), a technical expert and an interpretation educator.

- ▶ Key Words: Remote Interpreting, Video-conference Interpreting, Covid-19, ICT, Technical Considerations
- ▶ 키 워 드 : 원격통역, 화상회의통역,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통신기술, 기술적 문제

1. 서론

2020년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전 인류가 21세기 들어 겪어보지 못한 ‘팬데믹(pandemic)’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현재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모든 국가는 전염병 확산 방지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여행자제, 이동제한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적인 관광은 물론 비즈니스 출장을 포함한 국가 간 인적 교류가 급감하게 되었다. 더불어 국제회의도 연달아 취소되거나 연기,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온라인화상회의로 대체되기도 하였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존의 전통적 방식의 현장 동시통역을 대체해서 2020년 하반기 들어서는 원격통역(Remote Interpreting)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그동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원격통역이 대세로 자리매김하면서 기술적 문제 및 통역사의 역할 및 요율, 통역환경 등의 문제가 대두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해외, 특히 유럽연합 등에 비해 원격통역에 대한 선호도가 기존의 전통적 통역방식인 현장통역(On-site Interpreting)에 비해 떨어져 대부분의 기관이나 업체에서 현장통역을 선호해왔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원격통역이 기존의 현장통역을 대체하면서 하나의 통역모드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20년 한 해 동안 대부분의 회의가 그 규모에 관계없이 원격통역으로 이루

어지며 원격통역의 한계점 또한 드러나게 되었다. 인터넷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영상과 음성이 송출되는 원격통역은 각 나라마다 네트워크 서비스망 공급률이나 네트워크 종류에 따라 원격통역의 질이 좌우된다.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라 볼릴 만큼 네트워크 보급률이나 질이 높지만 네트워크 보급률과 질이 낮은 해외 타 국가와 연결 시 원활하지 못한 네트워크 연결 문제로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통번역 업계 역시 원격통역을 별개의 통역 유형으로 분류하는 추세이다. 실제로 일부 통번역 대학원 센터를 비롯한 상당수의 통번역 서비스 제공 업체가 원격통역을 별도의 통역 부문(원격회의 통역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원격통역의 증가세를 반영하는 지표라 할 수 있겠다(임세인, 2015).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현재 한국의 원격통역 상황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원격통역이 어떻게 자리 잡을 지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전시 대표 1인, 원격통역 기술전문가 1인, 현역 통역사 1인, 학생들에게 원격통역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1인 등 총 4인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여 원격통역의 현황과 향후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2. 원격통역의 개념과 분류

2.1 원격통역의 개념

일반적으로 통역은 화자와 통역사 등 모든 회의 참여자가 동일한 물리 공간을 공유하는 상황에서의 통역을 지칭하였으나 정보통신기술의 확산과 다언어주의 현상의 확대 등으로 의사소통 방식이 변화하며 통역 역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게 되었다(Brown, 2006). 무주라키스(Mouzourakis, 2006)가 “원격통역은 통역사가 회의 장소에 함께 있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 장소 또는 연사를 직접적으로 보지 않고 화면에 띄워진 영상과 헤드셋에 들려오는 음성만으로 통역하는 것이다”라고 내린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회의장 배인 슬라이드와 연사를 보며 청중의 반응까지 파악할 수 있는 기존의 현장통역에 비해 원격통역은 분명 제한점이 존재한다. 와덴쥔(Wadensjö, 1999)가 “전화통역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줄 뿐 아니라 응급상황이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라고 지적한 데서 알 수 원격통역(Remote Interpreting)은 최근 코로나 사태로 주목받게 된 통역 형태이지만 이미 1970년대 말 유네스코에서 세계 최초로 대규모 위성회의 실험인 파리-나이로비(Paris-Nairobi)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원격통역의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다(임세인, 2015). 그 이후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로 위성이 아닌 인터넷망에 기반한 원격통역 시스템이 자리를 잡게 되어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원격통역은 하나의 통역모드로

자리잡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회의통역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ference Interpreters AIIC)로 대변되는 전문 통역계는 지금까지 통역 품질과 통역사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전통적인 회의통역을 지지해 왔으며 ICT에 음성과 이미지를 의존하는 원격통역을 정식 통역으로 수용하지 않는 입장이었다. COVID-19 상황에서 4월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조차 “이번에 원격통역(DI)관련 발표한 권고 사항은 COVID-19라는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전문통역계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천명했다(AIIC, 2000/2002, 2018, 2020: 김순미, 2020에서 재인용).

2.2 원격통역의 분류

원격통역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명칭을 다르게 해서 구분하고 있는데 국제회의통역사협회(AIIC)에서는 원격통역을 “통역사들이 한 개 이상의 스크린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송받은 영상과 음성에 기반해 원거리에서 수행하는 원격통역(Distance Interpreting, DI)”(AIIC, 2019)이라고 분류하였고 각 국가별로 원격통역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주로 많이 행해지는 원격통역 형태를 중심으로 원격통역에 대해 다양하게 분류해서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임세인(2015)은 해외 문헌과 각 국가별로 원격통역의 개념을 다음 표와 같이 분류하였다.

〈표 1〉 원격통역에 대한 해외 문헌의 개념 분류

지역/국가	용어	특징/범위	유형	연구자/기관
유럽	remote interpreting	-화상회의 포함 -통역사 전적분리	동시	ITU/ETI(1999)
	remote interpreting	-통역사 전적분리	—	무주라키스(2006)
	remote interpreting	-화상회의 미포함 -통역사 전적분리	동시	안드레스와 팔크(2009)
	video interpreting	-회의장에서 화상통역		
	interpreting in a teleconference	-회의 참가자 전원 원격연결 -전화 및 화상회의 포함	—	브라운 (2006)
	remote interpreting	-통역사 전적분리	동시, 순차	AVIDICUS (2008-2011)
	videoconference interpreting	-통역사 부분적 혹은 전적분리		
remote interpreting	-통역사 전적분리			
미국	remote interpreting	-전화통역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 -통역사 전적분리	주로 순차	미켈슨(1997)
	remote interpreting	-전화통역, 원격화상통역으로 구분	—	켈리(2007)
캐나다	remote interpreting	-전화 또는 인터넷 통역	—	포스버리스(2007)
호주	remote interpreting	-전화, 인터넷, 화상통역	순차	고(2006)

1990년대의 통신 및 디지털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통합은 다국어 회의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통역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Pöchhacker, 2004: 임세인, 2015에서 재인용) 위성이 아닌 지상파를 이용한 화상회의 통역 등 다양한 형태의 원격통역을 지원했다. 실제로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양방향(dyadic)’ 원격 의사소통(소그룹회의 등)과 ‘일방향(monologic)’ 원격 의사소통(강연, 국제회의 등) 환경에서의 통역 급증으로 이어지며(Braun, 2007: 임세인, 2015에서 재인용) 원격 회의에 참여하는 통역사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선도했다. 원격 회의 통역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온 유럽, 그리고 커뮤니티 통역의 확산으로 2000년대 이후 원격회의 통역이 급증한 북미와 호주의 경우 최근 들어 원격통역을 교육환경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 등 논의를 확대 중이다(임세인, 2015).

AIIC(2020) ‘원격동시통역 기준서’(Reference Guide to Remote Simultaneous Interpreting)에서는 통역사들이 현장 통역 시 쓰이는 부스 등이 마련된 허브에 모여서 장비 기술자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통역하는 경우를 ‘원격 허브 통역(remote hub interpreting)’라고 지칭하고 두 파트너만 일정 장소에 모여서 통역을 진행하는 경우 단독 부스 허브 통역(interpreting in a single-booth hub), 모든 통역사가 각각 분리되어 가상공간에서 서로 혹은 다른 참여자들과 의사소통하는 경우는 ‘가상 부스 통역(virtual booth interpreting)’이라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통역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전화 인터뷰에서는 AIIC의 기준에 따라 ‘원격허브통역’, ‘단독부스통역’, ‘가상부스통역’으로 나눠서 구분하기로 한다.

3. 국내 원격통역 현황에 대한 인터뷰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현장 통역이 급격히 줄어들고 그 대안으로 화상회의가 일상화되면서 원격통역 서비스 제공자인 통번역 에이전시, 장비업체, 통역사, 통역교육자의 입장에서는 원격통역에 대한 관심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이미경(2019, p. 67)은 국내 회의 장소는 대부분 도심이고 전국이 일일생활권이라 국내의 의사소통 당사자 사이를 연결하는 원격통역보다는 국내와 국외를 연결해주는 통역이 더 빈번하다고 하면서 해외에서 회귀어로서 한국어에 대한 원격통역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미경이 지적한대로 한국은 전국이 일일생활권이라 그동안 국내에서 행해지는 회의나 행사는 현장통역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이제는 국내에서 행해지던 해외와 국내가 연결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대부분의 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니만큼 원격통역 환경이나 장비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적응을 해나가며 더욱 질 좋은 원격통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점을 모색해야만 하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원격통역 서비스 제공자인 통번역 에이전시, 장비업체, 통역사 및 통역교육자의 입장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원격통역 현황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개선점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향후 원격통역의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본 연구자는 통번역 에이전시 대표 1인, 장비업체 실무자 1인, 통역사 1인, 통역교육자 1인 등 총 4인을 선정해 전화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2020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원격통역 중 ‘원격허브통역(remote hub interpreting)’, ‘단독부스허브통역(single booth hub interpreting)’, ‘가상부스통역(virtual booth interpreting)’ 중 어떤 모드가 가장 선호되고 실제 사용이 되었습니까?
 - 2) 각 원격통역 모드별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3)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원격통역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4) 기존의 현장통역과 비교해서 원격통역 효율은 적정선에서 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4번 질문은 통번역 에이전시 대표, 통역사에게만 적용함)

3.1 통번역 에이전시 대표와의 인터뷰

통역수요가 발생하면 그 수요를 일차적으로 처리하는 곳은 통번역 에이전시이다. 국내에는 다수의 통번역 에이전시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회의장 세팅이나 장비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는 에이전시도 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폐업을 하거나 업종 변경을 한 에이전시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를 위한 전화 인터뷰를 진행 하면서 알게 되었다. 본 연구 인터뷰 대상 통번역 에이전시로는 1998년 통번역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해 2021년 현재까지 운영 중인 “위컴(Wecomm)”을 선정하였다. 글로벌 기업위주의 탄탄한 고객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400명이 넘는 소속통역사를 거느린 ‘위컴’은 고객업체의 만족도가 높아 고객충성도 측면에서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에이전시로

평가된다. 다음은 ‘위کم’의 고혜란 대표와의 전화 인터뷰(2020년 12월 20일 진행) 내용이다.

1) 질문 1번 “2020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원격통역 중 ‘원격허브 통역(remote hub interpreting)’, ‘단독부스허브통역(single booth hub interpreting)’, ‘가상부스통역(virtual booth interpreting)’ 중 어떤 모드가 가장 선호되고 실제 사용이 되었습니까?” 에 대한 답이다.

: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초기 2~3개월간은 통역사가 재택으로, 회의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 회의 플랫폼인 zoom에 연결해서 회의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중간에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회의 참가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2020년 여름 이후부터 통역의뢰업체, 즉 회의 주최측에서 반드시 통역사들을 특정장소에, 예를 들어 회의실이나, 의뢰측 담당자와 한 공간에 있게 해서 만약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zoom이든 webex등 웨비나 형태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회의 참가하게 되었다. 그 형태가 지금 현재 2020년 연말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일종의 하이브리드 형태로도 볼 수 있는데, 즉 일부는 한 장소에 모여 있고 그 외의 참석자들은 각자 zoom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이화여대에서 있었던 행사의 경우 이화여대 내의 한 장소에 국내 연사 및 통역사, 주최측 담당자가 모여서 행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행사 참가자들은 모두 zoom을 통해 접속해서 행사에 참가했다.

2) 질문 2번 “각 원격통역 모드별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답이다.

: 일단 화상회의가 연사, 통역사, 청중이 모두 zoom으로 연결되서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네트워크가 중간에 끊기는 문제라고 보여진다. 인터넷 연결문제인데... 우리나라 쪽은 거의 문제가 없으나 해외에서 zoom플랫폼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재택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서 끊기는 문제이다. 두 번째 문제는 마이크 문제인데, 우리나라 쪽은 괜찮은데 해외에 있는 연사나 참가자들은 대부분 노트북을 켜고 노트북에 내장된 마이크를 쓰기 때문에 따로 헤드셋을 쓴다거나 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음질의 문제가 생겨서 에이전시 입장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연사들은 반드시 노트북에 내장된 마이크가 아닌 헤드셋을 쓰고 별도의 마이크로 얘기를 해달라고 요구를 반드시 하고 있다. 해외 연사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잘 들릴거라고 생각하는데 노트북에 내장된 마이크만으로는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런 경우 통역사가 연사에게 매번 목소리가 들리지않는다고 연사 발화 중에 끊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연사, 통역사, 기술자가 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zoom으로 연결된 경우는 문제가 생긴 적이 한 번도 없다. 일종의 하이브리드 형태인 경우로 얼마 전 개최된 한국 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회의인데 한국 측 연사들과 통역사 및 관계자들은 국내 회의 장소에 모여 있고 독일을 비롯한 다른 나라 해외 연사들 및 독일 인권위원회 위원들이나 기타 참가국 인권위원들은 청중이라고 보기에 애매한 참석자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아무튼 zoom을 통해 회의에 들어왔다. 이런 경우 에이전시 입장에서 장비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기존의 현장 통역시 필요한 장비 이상의 장비가 필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zoom으로

연결되서 들어오는 해외 연사나 참석자들이 국내의 한 장소에 연사, 통역사, 관계자가 모여 진행하는 회의에서 보여지는 영상을 똑같이 보며 공유해야하므로 영상이나 화면을 띄워주는 문제가 있다. 또한 원격통역시 부스에 있는 통역사들도 영상을 봐야 하고 해외 연사들이 띄우는 영상도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기술력을 갖춘 장비업체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려면 장비사용금액이 너무 높음. 통역료의 3배 정도의 가격이 기본 장비 세팅비로 책정된다. 일단 기본 장비값이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인데 여기에 라이브 방송이나 유튜브 송출하게 되면 금액이 더 올라간다. 한 장비업체는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아서 zoom만 사용해서 회의를 진행하면 200만원으로 장비를 설치해주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 여기에 유튜브 송출까지 하면 50만원이 추가된다. 음향비 80만원에 중계카메라까지 쓰면 100만원이 추가되므로 장비값만 기본 300만원에서 400만원 나오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꺼리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런 잘하는 장비업체는 비싸지만 그만큼 인원이 충분히 와서 일을 진행한다. 5명 이상의 기술자가 투입되는데 각각 전문분야, 예를 들면 영상이면 영상, 녹화면 녹화, 음향이면 음향 등 각 전문가가 업체에서 파견을 해서 내보내는 협업형태로 알고 있다. 내년엔 개최예정인 대규모 행사 때 이런 장비를 써야 하는데 고민 중이다. 원격통역 장비를 갖추지 않은 기존의 장비업체들은 코로나 사태를 버티지 못하고 다 문을 닫은 것을 여러 장비업체에 알아보다가 알게 되었다. 기존의 현장통역 장비만 가지고 있던 업체들은 더 이상 통역시장에서 기존의 장비만으로는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3) 질문 3번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원격통역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답이다.

: 앞으로 코로나가 물러가더라도 사람들이 화상회의, 즉 웨비나 형태의 회의가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알았기 때문에 장비 설치비가 비싸더라도 기존의 현장 회의를 진행할 때 주최 측이 해외 참석자들에게 제공해야했던 항공료, 숙박비 등에 비용지출에 비하면 장비 설치비는 그에 훨씬 못 미친다. 회의 주최 측에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향후 기존의 몇 천 명, 몇 백 명이 한 장소에 모이는 대규모 회의 보다는 온라인 회의를 계속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모든 회의가 다 온라인회의로 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온라인회의가 계속 선호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컴의 클라이언트 업체 중 홍보대행사,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등은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고 본사와 지사가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 현장통역으로 진행할 때는 사전 준비가 많았다. 원격회의가 진행되면서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 홍콩 지점에서 위컴에 직접 전화해서 “지난번 회의 때 통역했던 통역사 섭외해서 이번에 있을 온라인회의 때 통역할 수 있게 해달라, 회의세팅은 홍콩 쪽에서 할테니 다른 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사전 준비절차 없이 간단하게 회의가 진행되는 만큼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온라인회의가 편리하고 비용도 절감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게 되고 선호도가 아주 높아졌다는 것을 절감한다.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원격통역으로 진행되는 회의형태는 그대로 갈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다만 청중이 많이 모여야 회의가 의미 있는 행사, 발표자나 연사를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보는 것에 의의를 둔 이벤트성 회의나 행사의 경우 기존 현장통역이 여전히 필요하지만 실무적인 회의나 소규모 회의는 온라인회의로 거의 90%정도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 질문 4번 “*기존의 현장통역과 비교해서 원격통역 효율은 적정선에서 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답이다.

: 기존 현장통역과 원격통역 효율은 똑같이 가고 있다. 주최 측에서 통역내용을 녹음을 하게 되면 예전처럼 똑같이 저작권료 받는다. 효율에 있어서는 기존 현장 통역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위컴의 경우 클라이언트 업체들이 오랜 기간(20년 가까이) 회의통역을 위컴에 맡기고 있었기 때문에 원격통역이라고 해서 효율을 낮추거나 하지는 얘기는 없었다. 다만 글로벌 금융회사인 경우 해외 본사에서 한국에 기자단 또는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하러 오는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직접 오지 못하게 되어 온라인으로 PT를 진행할 경우 미리 해외 본사에서 한 시간짜리 PT를 녹화를 떠서 위컴에 보내서 통역사의 통역을 그 PT에 녹음해달라라고 요청이 들어온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이런 경우 통역효율은 현장통역 효율과 같이 받지만 저작권료는 받지 못한다. 한 시간짜리 PT니까 현장통역과 똑같이 통역사 2명에 대한 통역 효율을 청구하면서 딱 한번만 쓸 수 있다, 여러 번 쓸 수 없다라는 점을 충분히 사전에 고지하고 진행한다. 녹음의 문제는 온라인회의 때 통역내용을 녹음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의 신뢰가 중요하다. 미리 녹음이나 녹화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진행하다보면 클라이언트 측에서도 녹음이나 녹화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 같다.

3.2 회의통역 장비업체의 입장

본 인터뷰 대상 회의통역 장비업체로는 2004년 설립 이후 국내업체로는 유일하게 ISO 국제규격에 맞는 통역부스와 장비를 보유한 (주) 아이엑스코(IEXCO)를 선정하여 실무를 맡고 계신 이민호 팀장과 전화 인터

뷰를 2020년 12월 21일 진행하였다. 이민호 팀장께서는 질문 4번 대신에 원격통역 장비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이에 대한 답은 3번 질문에 대한 답에 함께 포함시켰다.

1) 질문 1번 “2020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원격통역 중 ‘원격허브통역(remote hub interpreting)’, ‘단독부스허브통역(single booth hub interpreting)’, ‘가상부스통역(virtual booth interpreting)’ 중 어떤 모드가 가장 선호되고 실제 사용이 되었습니까?”에 대한 답이다.

: 2020년 한 해 동안 온라인회의, 원격회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실험적 시도도 있었다. 아직 온라인회의의 모드가 완전히 set-up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2021년은 좀 더 안정적으로 set-up되어 가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통역모드에 있어서는 통역사들이 회의장이나 특정장소에 hub개념으로 모여서 통역을 진행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동시통역이라는 것이 통역사끼리의 협업이 중요한 업무이다보니 핸드오버 기능을 살려야하므로 zoom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통역사들이 각자 떨어져서 통역을 하게 되면 핸드오버 부분에서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 통역사들이 한자리에 있으면 통역을 하지 않고 있는 통역사가 파트너 통역사가 통역하는 내용을 옆에서 모니터해주거나 빨리 보완해줄 수 있는데 각자 떨어져서 통역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효율적이지 못했다. 이런 점 때문에 최소한 회의 주최 측, 사회자, 통역사까지는 한 장소에 모여 회의나 행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통역사들이 각자 떨어져서 통역을 하는 zoom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회의는 그동안 한국의 지리적 특성상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국내는 지리적으로 멀지 않다보니 대부분 회의나 행사가 열리는 곳이 서울과 수

도권이기 때문에 통역사분들의 거주지와도 멀지 않은 경우가 많고 하니 특정장소에 모이는 것을 더 선호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굳이 국내에서 진행되는 회의를 온라인 zoom으로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2) 질문 2번 “각 원격통역 모드별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답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회의에서 네트워크 끊김 등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국내 네트워크 전문가들은 통역 시 생기는 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았고, 네트워크 트래픽(network traffic)이 2020년 한 해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네트워크 담당자분들도 굉장히 바쁜 한 해를 보내셨다. 저희 장비업체의 경우는 원격통역 장비를 통역사분들에게 제공할 때는 기존 통역 장비의 인터페이스(interface)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렸다. 시스템 디바이스 간에 연결해드리는 역할을 저희 업체가 많이 했다. 저희 업체와 일하시는 통역사분들은 ‘장비가 익숙해서 편하다’라는 반응을 많이 해주셨다. 즉 통역사 입장에서는 기존 현장통역 동시부스 내의 통역디바이스(device)와 동일하게 쓸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그 외의 디바이스를 통해 통역을 경험하셨을 텐데, 예를 들면 zoom의 통역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어렵지는 않으나 모니터 클릭이라든지, 컨트롤하는 거라든지 조작 자체가 어렵지는 않으나 만약 잘 안된다하는 경우에 누군가가 옆에서 서포트(support)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 zoom으로 원격통역을 했을 때,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그걸 핸들링(handling)해주는 사람이 옆에 없다는 것이다. 저희 업체도 서비스 플랫폼을 직접 제작하는 업체는 아니고 유저(user) 입장이다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모니터링 권한도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도 있다. 예를 들

어 일반 계정에서는 모니터링이 안 되지만 특정 계정 이상으로 올라가면 네트워크 모니터링에 대한 권한들이 생긴다거나, 플랫폼 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서비스해주는 업체는 국내에서 많이 보지는 못했으나 기능상으로는 제공을 해주고 한다면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원격통역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3) 질문 3번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원격통역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답

: 원격동시통역 장비료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내 동시통역장비시장은 기술경쟁이 아니라 금액경쟁이었다. 저희 회사도 더 이상 동시통역 장비에 매진하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투자대비 아웃풋(output)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국제기준을 충족시키는 동시통역 부스를 갖춘 업체는 저희 회사 아이엑스코가 유일한데, 예를 들면 국제기준 동시통역 부스 가격이 2천 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활용을 해줘야 하는데 막상 통역시장에서는 장비 금액만 가지고 항상 경쟁이 되다 보니까 좋은 제품과 좋은 서비스를 국내에서는 유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저희 서비스 비용이 2백 만원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기타 경쟁회사에선 절반 가격 또는 그 이하 가격으로 제공하는 업체도 많다. 국제 기준으로 가면 좋은데 그러다보면 장비료가 올라가니 통역시장에서 경쟁에 밀리고 회의 주최 측은 장비료를 절감하려고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회사의 저렴한 장비 서비스를 받으려 하고 하다보니까 더 이상 업체 입장에서 동시통역 장비 투자에 메리트가 없어지고 사양산업처럼 인식이 되어왔다. 그런 식으로 기존의 오래된 동시통역 장비를 가지고 시장에서 가격경쟁만 해오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절

하게 대응을 못하게 된 것이다. 현장통역이 급감하면서 통역 장비업체는 일이 줄어들면서 회사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동시통역 장비도 미래를 보면서 성장해 나가야 하는데 ISO기준도 4043이나 부스 또 장비에 대한 기준들도 글로벌하게 보면 바뀌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수요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기존 장비만 써도 잘 됐는데 굳이 비용을 더 내고 국제 기준에 맞는 새로운 장비를 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현실이다. 현재 국내 장비 서비스 단가가 중국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도 많다. 그동안 금액경쟁으로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서비스 단가는 10년 전, 20년 전 가격 그대로인데 글로벌하게 보면 통역 장비는 계속 발전하고 새로운 장비가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발전을 전혀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서로 손해 보는 일이라 여겨진다. 소규모 장비업체의 입장에서 생존을 위해 가격경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원격통역은 기존의 현장통역과 하이브리드(hybrid)형태로 가지 않을까 전망된다. 코로나가 끝나서 현장에서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원격통역이 갖는 효율성을 모두 인식하고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현장 회의 통역을 진행을 하면서도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원격통역도 함께 진행이 되는 융합된 형태로 가지 않을까 전망된다. 현장통역이 갖는 장점과 메리트가 있으나 원격통역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해외 참가자들과 연결되었을 때 생기는 다양한 네트워크 연결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앞으로 차근차근 해결되어 나가리라 보인다. 인터넷으로 상호 연결되는 것이 필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해외국가들도 네트워크 향상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zoom이던 webex던 화상회의의 네트워크 문제는 주최 측이나 사용자가 항상 네트워

크 연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던지 화상회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한해였고 2021년은 그런 양상이 안정화되리라 생각된다.

3.3 통역사의 입장

국제회의통역사로서 그동안 수 백회의 대규모 국제회의 통역을 해오고 다수의 원격회의통역을 해온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이주연 교수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주연 교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동시통역사로서 2020년 한 해 동안 꾸준히 원격회의통역을 수행하였고 다양한 현장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음을 밝힌다.

1) 질문 1번 “2020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원격통역중 ‘원격허브통역(remote hub interpreting)’, ‘단독부스허브통역(single booth hub interpreting)’, ‘가상부스통역(virtual booth interpreting)’ 중 어떤 모드가 가장 선호되고 실제 사용이 되었습니까?” 에 대한 답이다.

: 2020년 한 해 동안 진행했던 원격통역은 통역사, 주최 측이 한 장소에 모여 진행하는 허브(hub) 개념의 원격통역이 회의 참가자 전원이 각자 떨어진 장소에서 zoom이나 webex같은 인터넷 플랫폼에 접속해서 하는 화상회의통역보다 훨씬 비중이 많았다. 주최 측에서 통역사들이 한 장소에 같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진행을 해주어 놀랍기도 했다. 다만 허브개념으로 진행했을 때도 두 가지 양상을 보였는데 기존 현장통역과 똑같은 동시통역 부스에 통역사들이 들어가서 진행하는 경우와 특정 모임공간이나 회의실에, 예를 들면 토즈(TOZ)라던지, 통역사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2) 질문 2번 “*각 원격통역 모드별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답이다.

: 기존의 동시통역 부스에 들어가서 하면 장비도 익숙하고 방음도 잘 되기 큰 문제는 없이 진행되었다. 다만 해외연사가 화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연사 발언이 잘 안 들린다던지 영상이 잘 안 보이는 문제가 있긴 했지만 통역하는 부스 공간 자체는 통역사들에게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특정 모임 공간이나 회의실을 지정해서 통역사들이 함께 통역을 진행하는 경우는 방음이 안 되거나 소리가 울리고 흡음이 잘 안 되고 산만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정 오피스나 회의실에서 통역사가 모여서 통역을 진행했을 때 네트워크 연결 문제가 생겼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다만 와이파이 연결이 불안정한 곳에서 진행한 경우 끊긴 적이 딱 한 번 있었다.

3) 질문 3번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원격통역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답이다.

: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예전처럼 현장통역으로 100%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고 보여진다. 회의 성격에 따라 현장통역이 이루어져야 하는 회의나 행사가 있고 원격통역이 더 효율적인 소규모 회의라던가 비용절감이 필요한 간단한 회의인 경우 굳이 항공료를 지불하고 회의 장소까지 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성격의 회의들은 계속 원격통역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큰 행사인 경우, 청중이 모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이벤트성 회의나 행사는 기존처럼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포럼이라던지 참가자 상호 간 네트워킹이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인 것 같다.

4) 질문 4번 “기존의 현장통역과 비교해서 원격통역 요율은 적정선에서 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답이다.

: 원격통역도 기존 현장통역 요율과 똑같이 받았다. 녹음이나 녹화를 뜨는 경우에는 50% 추가 비용을 받고, zoom 화상으로 진행하지만 유튜브 중계 나가는 것은 100% 추가비용을 받았다. 그 외 등록된 제한된 참석자가 zoom으로 들어와서 하는 통역은 추가 요율 발생하지 않았다. 통역요율을 덜 받거나 그런 요구를 하는 클라이언트는 없었다.

3.4 통역 교육자의 입장

현재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전문 통번역학과 진실희 교수를 원격통역교육자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전문 통번역학과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8년부터 정식교육과정에 원격통역 교육을 포함시켜 스카이프와 폴리콤 등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원격통역을 교육해 왔으며 2020년 여름방학 동안 업그레이드된 원격통역 장비를 설치해서 원격통역 수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1) 질문 1번 “2020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원격통역 중 ‘원격허브통역(remote hub interpreting)’, ‘단독부스허브통역(single booth hub interpreting)’, ‘가상부스통역(virtual booth interpreting)’ 중 어떤 모드가 가장 선호되고 실제 사용이 되었습니까?”에 대한 답이다.

: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원격통역 교육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난 후 원격통역 툴(tool)의 기술적인 부분이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다. 코로나 전에는 원격통역 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연사 발화의 70~80% 정도만 통역할 수 있었다. 제 박사논문이 2016년에 나왔으니, 그전 원격통역 상태를 점검해봤는데 회의 내용 중

70~80% 정도만 통역이 진행될 정도로 기술적인 부분이 미흡했으나 코로나사태가 터지고 난 후에는 회의 통역이 큰 문제없이 진행될 정도로 기술력이 발전하게 된 것을 체감하게 되었다. 원격통역은 기술력에 의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2) 질문 2번 “각 원격통역 모드별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답이다.

: 학생들의 반응이 학생 중에는 얼리어답터(early adapter)도 있지만 원격통역 기술을 싫어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원격통역을 왜 배워야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는 학생들이 있다. 전통적인 통역만 배우면 되지 굳이 이런 원격통역 환경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하는지에 대해 설득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다. 한 강의실에 원격통역 교육에 대해 수동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너무 얼리어답터로서 교수자보다 더 많이 아는 학생들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이 원격통역 수업 시 힘든 점이다. 통역에 대한 열정을 모두 갖고 있는 학생들이지만 기술 수용(technology acceptance) 부분에서 학생들의 성향이 극과 극으로 나뉜다. 이런 경우 교수자 입장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어느 학생을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다. 수업 시작 전에 학생들에게 왜 원격통역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먼저 설득을 하고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예전에는 통역수업 시 통역 수행도가 중요한 핵심이었으니 이제는 원격통역에 필요한 기술 수용도가 강의의 초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강의평가 시에도 학생에 따라 다양한 원격통역 방식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학생이 있는 반면 굳이 원격통역 수업을 해야 하는가를 묻는 학생도 있을 만큼 반응

이 극과 극으로 나뉜다. 하지만 그런 것을 다 초월할 만큼 원격통역 학습의 필요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은 사회전체가 디지털 전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 울타리 안에 있어서 그런 방향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정부나 기업 모두 다 디지털 전환으로 가고 있기에 생존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 즉 원격화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절벽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과 같다고 맥킨지 보고서에서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3) 질문 3번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원격통역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답이다.

: 일단 사회 전체가 디지털 전환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기업은 생존을 위해 디지털화하고 있고 정부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통번역은 그 사회의 니즈(needs)를 서비스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사회의 기업이나 정부가 움직이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원격통역의 viability는 중요하고, 당분간 대면과 비대면 회의가 병행하는 시기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으로 가고 있는 방향성을 본다면 그 사회의 니즈를 서비스하는 통번역을 교육시키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방향으로 선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정리 및 나가기

본 연구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현재 국내에서 행해지는 원격통역에 대하여 통번역 에이전시와 통역장비업체, 현역 통역사, 통역교육자의 입장에서 기존의 현장통역과 비교해서 장, 단점과 개선점 등을 짚어보았다.

먼저 각 질문에 대한 인터뷰 대상자분들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다.

1번 질문 “2020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원격통역 중 ‘원격허브통역(remote hub interpreting)’, ‘단독부스통역(single booth hub interpreting)’, ‘가상부스통역(virtual booth interpreting)’ 중 어떤 모드가 가장 선호되고 실제 사용이 되었습니까?” 에 대해

- 통번역 에이전시 ‘위컴’ 고혜란 대표는 2020년 한 해 동안 원격허브통역형태와 단독부스통역형태가 가장 빈번하게 행해진 통역형태이며 가상부스형태는 많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 통역장비업체 ‘아이엑스코’의 이민호 팀장은 원격허브통역과 단독부스통역형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답하였다.
-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이주연 교수는 현역 통역사로서 원격허브통역과 단독부스통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답하였다.
-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진실희 교수는 통역교육자로서 향후 사회 전체가 디지털 전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원격허브통역, 단독부스통역뿐만 아니라 가상부스통역에 대한 교육도 선제적으로 실시해야한다고 답하였다.

2번 질문 “각 원격통역 모드별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해

- 통번역 에이전시 ‘위킴’ 고혜란 대표는 원격회의 중 다른 큰 문제는 없었으나 연사나 발화자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답하였다.
- 통역장비업체 ‘아이엑스코’의 이민호 팀장은 원격허브통역은 기존의 동시부스와 같기 때문에 통역사들이 편하게 통역에 임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고 가상부스통역의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핸들링(handling)해줄 수 있는 기술자나 담당자가 옆에 없다는 것과 또한 통역사들 간의 핸드오버(handover)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이주연 교수는 현역 통역사로서 원격허브통역의 경우 기존의 동시통역부스에서 통역을 하기 때문에 익숙하고 편하게 통역에 임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지만 해외연사의 음성이 잘 안 들린다거나 영상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었으며, 단독부스통역의 경우 동시통역 부스가 아니기 때문에 방음이 잘 안 된다거나, 산만해지고, 하울링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마이크 흡음의 문제 등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진실희 교수는 통역 교육자로서 학생들 간 기술 수용도에 있어서 차이가 많은 만큼 원격통역 장비사용 필요성에 대해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하는 점이 어려웠던 점이라고 답하였다.

3번 질문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원격통역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 대해

- 통번역 에이전시 ‘위컴’ 고혜란 대표는 클라이언트(client)입장에서 온라인회의가 비용 절감도 되고 편리하다는 것을 한 해 동안 온라인 회의를 하면서 절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원격 회의통역은 상당 부분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하였다.
- 통역장비업체 ‘아이엑스코’의 이민호 팀장은 향후 기술적인 부분, 네트워크 연결 문제는 차차 해결되리라고 보이며 온라인회의의 효율성에 대해 모두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통역이 진행되면서 동시에 원격으로도 송출이 되는 하이브리드 형태를 선호할 것이며 그동안 온라인회의에서 드러났던 각종 시행착오나 문제점 등은 향후 안정적으로 해결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전망하였다.
-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이주연 교수는 현역 통역사로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원격회의 통역은 여전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며 회의나 행사 성격에 따라 현장 통역과 원격통역이 함께 공존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진실희 교수는 통역 교육자로서 사회 전체가 디지털 전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원격회의 통역이 주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그 흐름에 맞춰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학교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답하였다.

4번 질문 “기존의 현장통역과 비교해서 원격통역 요율은 적정선에서 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해

- - 통번역 에이전시 ‘위컴’ 고혜란 대표는 원격통역 요율은 현장통역과 똑같이 가고 있으며 클라이언트도 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하였다.
-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이주연 교수는 현역 통역사로서 원격통역이라고 해서 현장통역 요율보다 적은 통역료를 받은 적은 없다고 답하였다.

인터뷰에 대한 통역관련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원격회의 통역이 대세로 자리잡으며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회의 주최 측에서 통역사들이 한 장소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원격허브통역이나 단독부스통역으로 대부분의 회의를 진행시킨 점과 원격회의통역 요율을 현장통역과 똑같이 책정하는 부분 등은 원격회의통역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 것으로 보인다. zoom이나 webex를 이용한 가상부스통역의 경우 실제 통역이 이루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네트워크 연결은 각 국가별로 온라인 연결이 중요해지는 점을 인식하고 네트워크를 개선하게 되면서 점차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회의나 행사의 성격에 따라 현장감이 중요한 경우는 현장에서 참석자가 모두 모이는 기존의 현장행사로 진행되고 실무급회의나 청중이나 참석자가 필요치 않은 소규모회의는 원격으로 진행되며 주최 측의 필요에 따라 현장과 원격회의가 혼재되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통역도 전통적인 현장통역과 원격회의통역 수요가 함께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 에이전시나 장비업체, 현역 통역사 그리고 통역 교육자 모

두 적절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순미(2020)의 통역사대상 설문조사 연구에서 드러난 것보다 맥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COVID-19와도 같은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제약을 견딜 수밖에 없으나 이 상황이 종결되면 한 통역사가 설문에서 답했듯이, ‘네트워킹이 중요한 세미나, 학술회의의 경우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통역을, 기업 매칭회나, 투자설명회, 스타트업의 IR, 피칭 등과 같은 소규모 전문회의의 경우 원격통역을 하는’ 등 상황에 맞게 적절한 통역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해결법이 될 것이다. 즉, 현장감이 중요한 회의는 결국 전통 통역으로, 소규모 지식전달 위주 화상회의는 원격통역으로 이원화될 수 있을 것이다. (김순미, 2020, pp. 27-28)

참고문헌

- 김순미 (2020) 「언택트시대 원격통역이 주는 도전과 과제」, 『통번역학연구』 24(4): 1-33.
- 이미경 (2019) 「원격통역 활성화 요건 및 통역교육의 함의」, 『통번역교육연구』 17(2): 63-84.
- 임세인 (2015) 「원격통역의 개념과 연구동향」, 『통역과 번역』 17(3): 163-189
- AIIC (2019). Guidelines for distance interpreting. <https://aiic.ch/wp-content/uploads/2020/04/aiic-guidelines-for-distance-interpretation-version-10.pdf>
- AIIC (2020). Reference guide to remote simultaneous interpreting. <https://aiic.ch/wp-content/uploads/2020/05/aiic-ch-reference-guide-to-rsi.pdf>

- Braun, S. (2007). Interpreting in small-group bilingual videoconferences: Challenges and adaptation process. *Interpreting*, 9(1), 21-46.
- Christina, A. K. (2018). Remote interpreting via Skype - A viable alternative to in situ interpreting?. *The Interpreters' Newsletter*, 25, 83-102.
- Elena, D. & Sabine, B (2020). Analysing international phenomena in video remote interpreting in collaborative settings: Implications for interpreter education.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29(3), 3-30.
- Mouzourakis, P. (2006). Remote interpreting: A technical perspective on recent experiments. *Interpreting*, 8(1), 45-66.
- Nicoletta, S, Michela, B & Mariachiara R. (2018). Shaping the interpreters of the future and of today: Reliminary results of the SHIFT Project. *The Interpreters' Newsletter*, 2018(23), 45-61.
- Pöchhacker, F. (2004). *Introducing Interpreting Studies*. London: Routledge.
- Wadensjö, C. (1999). Telephone interpreting & the synchronization of talk in social interaction. *The Translator*, 5(2), 247-264.

이현경

한국의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특임교수

agneshk1@hanmail.net

관심분야: 웹툰 번역, 비속어 번역, 원격통역

논문투고일: 2020년 12월 31일

심사완료일: 2021년 2월 6일

게재확정일: 2021년 2월 23일

번역의 미래에 대한 다중참여적 고찰

최 희 섭

(전주대)

Choi, Hie Sup. A Crowdsourced Thought on the Future of Translation Studies

As computer techniqu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 very rapidly these days, all the world are facing a new stage of development call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ue to the pandemic of Covid 19, the world are experiencing a drastic change of their living circumstance this year, 2020. Everybody foretells the future but nobody says for sure. The Translation studies scholars and translators are facing a new world which is undergoing the change of the teaching contents and method, studying subject and practicing translation. Crowdsourcing translation seems to be the mainstream we cannot oppose. Lots of scholars diagnose the situation in various ways and say about what they should do and teach or learn to adjust to the changed future. What they agree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points. Their situation will be changed a lot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eep learning program. The translators should be skillful in dealing with computer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e machine translation will be popular in translating common, everyday material but specific fields such as what needs profound specialized knowledge, what is in strict secrecy, and what is closely connected with human emotion etc. are left in the hands of

specialized translators. What they most emphasize is the importance of post editing ability. The scholars agree that a paradigm shift in education should be focused on the teaching material and contents.

▶ Key Words: Translation studies, Artificial intelligence, post editing, crowdsourced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 키 워 드 : 번역학, 인공지능, 사후 편집, 다중참여 번역, 기계번역.

1. 시작하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시대 또는 산업혁명 4.0 시대라고 칭한다. 컴퓨터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양식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김순미는 「디지털 시대 번역의 새 경향」에서 마이클 크로닌(Michael Cronin)의 말을 인용하여 “디지털 시대는 사람들을 언제나 어디서나 연결하는 온 세상에 편재하는 디지털 기기를 중심”(Cronin, 2013: 김순미, 2017b, p. 5)으로 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순미가 말하는 디지털 시대는 단순한 디지털 기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탕에 인공지능이 깔려 있는 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삶의 양식이 크게 변할 수밖에 없다.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크게 변할 것이라는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한다.

우리는 자신이 관련되어 있는 각종 학술단체가 그동안 매년 집단적으로 모여 진행하던 학술대회를 2020년 봄부터 지금까지 개최하지 않거나 온라인 학술대회로 진행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 대학뿐만 아니라

중 고등학교와 심지어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의 수업도 금년 봄부터 비대면 온라인 학습으로 많이 대체되고 있다. 손전화(smart phone)나 동영상 카메라와 같은 녹화장비를 이용하여 녹화한 동영상상을 기관의 시스템에 올려놓고 학생들이 편리한 시간에 시청하는 방식에서부터 줌(ZOOM)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까지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 학습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 모든 방식은 컴퓨터의 발전에 힘을 입은 바 크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은 앞으로 우리의 삶의 양식을 크게 바꾸어놓을 것이 분명하다. 변화된 미래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야 하는 학생들이 질적, 양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명확하다. 미래의 환경이 지금과 매우 다를 것이기 때문에 교육도 이에 발맞추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변화된 환경이 어떠할지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백가쟁명식으로 많은 이야기가 난무한다. 목표가 뚜렷하게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교육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

2020년 11월 12일 ‘2020 일반대 프레지던트 서밋 5차 콘퍼런스’가 ‘대학 교육의 혁신’을 주제로 서울클럽에서 개최되었다.¹⁾ 콘퍼런스에는 문용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이주호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및 많은 대학의 총장이 참석하여 교육 혁신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했다. 김인규 경기대 총장은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구할 수 없다는 점과 인공지능과 접목한 강의를 개발하는 문제를 고민하며 현실적으로 영어 학습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

1) 컨퍼런스에서 나온 총장님들의 의견은 『한국대학신문』에서 인용한다.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36999>

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순홍 한동대 총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틀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도구를 먼저 활용하려 한다고 했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지능형 개인교습 체계(Intelligent Tutoring System)에 대한 관심을 밝히며 학생들에게 맞는 지능형 개인교습 체계의 개발에 대학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황선조 선문대 총장은 인공지능을 전면 활용하는 상담제도 운영을 목표로 상담 내용을 빅데이터로 축적하는 중이라고 했다. 김재신 건양대 원장은 수업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면 효율적일 것이라고 하며 혁신적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홍남석 프레지던트 서밋 원장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극복되면 수업으로 다시 전환되면 인공지능 시스템을 오프라인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은 전직 교육부 장관의 모임인 ‘아틀란티스 그룹’에서 “100% 공감한 것이 교육에서 앞으로의 변화는 에듀테크(EdTech)가 이끌 것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에는 65%의 직업이 바뀐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모든 대학이 인공지능으로 빨리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인공지능 인재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모든 분야에 적용하는 전문가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애리조나 주립대의 수업은 예습 모델로 학생들이 인공지능 개인교수자(tutor)와 예습하고 나면 교수들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이사장의 말은 앞으로의 교육은 인공지능으로 하는 온라인 수업이 주류가 될 것이며 에듀테크가 교육의 변화를 주도하리라는 것이다.

대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총장들과 전직 교육부장관들이 앞으로의 세상은 인공지능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적용될 것이며 대학도 이에 대비하는 교육 내용과 방법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있

으므로 이의 실행은 크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대학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크게 변함에 따라 번역 교육 및 번역 실무도 역시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수년 동안 번역 교육의 커리큘럼과 번역 실무에 있어서 기계를 사용하는 내용이 추가되거나 기계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현상은 앞으로 기계사용이 더욱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짐작을 가능하게 한다. 번역 실무에 직접 참여하는 번역가의 임무와 역할도 변화할 것이라는 점에는 독자들도 동의하리라고 믿는다.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관하여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표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방식의 집단지성을 이용하여 다중참여적으로 앞으로의 변화를 예상해보고자 한다. 다중참여적으로 논문을 작성한다는 말은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한다는 의미이며 이들 학자의 지성을 모은다는 의미이지 여러 학자들이 공동으로 본 논문을 작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어문학관련 학술지들이 통역이나 번역과 관련된 논문을 수록하기 때문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 모든 학술지에 발표된 학자들의 견해를 모두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으므로 통번역관련 학술지 중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로 평가받는 『번역학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 수년 사이에 인공지능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번역학 연구』에 수록된 논문 가운데서 최근 수년 동안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 펼치기

김순미, 신호섭, 이준호는 2019년에 발표한 「번역학계와 언어서비스 업체(LSP)간 산학협력연구」에서 2016년 말 신경망 기계번역(Neural Machine Translation, NMT) 등장 전후로 국내 통번역 관련 주요 등재 학술지 4종²⁾에 게재된 인공지능 및 기계번역 관련된 논문이 32편임을 밝혔다. 최문선도 같은 해에 발표한 「국내 번역학 기계번역 연구 동향: 내용 분석과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에서 우리나라의 번역관련 전문 학술지가 처음 발행된 1997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기계번역 관련 논문이 49편임을 확인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발표된 논문 중에서 최근 수년 사이에 발표된 논문이 65%를 차지한다는 것은 이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김순미 등은 기계번역의 오류 유형과 인간번역과의 차이를 주제로 한 것이 9편, 통번역의 변화하는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한 것이 8편, 사후 편집(post-editing) 교육 관련 실험을 다룬 것이 7편, 기계번역의 한계와 가능성을 주제로 한 것이 4편, 구글, 파파고 등 엔진 성능을 비교한 것이 3편, 사후 편집의 기준을 다룬 것이 2편, 윤리 담론이 2편이라고 분석하였다. 최문선은 기계번역의 생산 관점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8편, 기계번역의 소비 관점을 다룬 연구가 31편, 기계번역의 실재를 개괄한 연구가 10편이라고 분석하였다(최문선, 2019, p. 285). 기계번역에 관련된 연구가 이와 같이 다양한 주제 하에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계번역이 번역학계의 중요한 관심사임을 보여준다. 이 중에서 번역의 미래를 전망하는 논문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들을 살펴보아 집단지성을 이용하면서 다중참여적 방식으로 결론을 맺는 것이 미래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예상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2) 『번역학연구』, 『통역과 번역』, 『통번역학연구』, 『통번역교육연구』

2.1. 기계번역

이노신, 이신재, 이재영, 이주희(2016)는 「통번역의 미래지평: 인공지능과 소통형 융합통번역 연구」에서 인공지능의 구성 및 작동원리를 살펴본다. 이 논문은 인공지능이 기계학습, 자연어 처리, 발화, 전문분야, 기획, 로봇공학, 시각처리 등 7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센서, 빅데이터, 신경망조직 기반의 딥러닝 시스템 등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한다고 설명한다(p. 69). 필자들은 기계번역 시스템을 기본 원리에 따라 규칙기반 방식과 통계기반 또는 신경망 기반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p. 71).³⁾ 구글(Google)은 신경망 기반 기계번역 서비스를 2016년 8월 영중 번역에 처음 제공하고 같은 해 11월 15일 한국어를 비롯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터키어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용어로 ‘싱귤래리티’(Singularity)라는 용어가 있다. 사전적인 정의는 ‘특이점’인데 전자공학이나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상당히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공학계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데이터와 기술적 집약이 꾸준히 이루어졌을 때 발전의 대 폭발이 발생하는 시점을 가리켜 ‘싱귤래리티’라고 한다. 그 시점 이후부터는 사실상 인간의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본다(이노신 등, 2016, p. 76). 공학계에서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조만간 ‘싱귤래리티’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싱귤래리티’의 시점을 지나면 번역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능가할 것이라는

3) 지금 번역학계에서는 통계기반 번역 시스템과 신경망 기반 번역 시스템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 이노신 외의 논문이 발표된 것은 2016년 6월로 신경망 기반 번역 시스템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시기임을 감안하면 통계기반과 신경망 기반을 동일시하는 것을 크게 무리한 일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예측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노신 등(2016)은 TV와 비디오가 출현했을 때 영화산업이 몰락할 위기에 처했으나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한 것을 예로 들면서 통번역의 경우에 더욱 폭넓은 보편적 저변화의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들은 통번역 전문가들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통번역 관련 기기들을 능숙하게 다루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래형 통번역 기기 제작에 번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권고한다(pp. 78-79).

이영훈(2020)은 「번역공학적 이성 비판: 디지털 시대 번역학의 과제」에서 이노신 외와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그는 프랑스의 장 가브리엘 가나시아(Jean-Gabriel Ganascia)와 문송천 카이스트 교수 등의 의견을 들어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기계는 결국 인간이 이용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한다(pp. 153-154). 프랑스의 인공지능 학자 장-가브리엘 가나시아는 『특이점의 신화』(Le mythe de la singularité)에서 인공지능의 발전 단계에서 기계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특정한 한 순간을 기술적 ‘특이점’(singularity)이라 할 때, 특이점 이론은 공상과학 소설 예나 나올만한 말이며, 최근 스티븐 호킹, 빌 게이츠 등이 경고했던 인공지능의 위협은 틀렸다고 주장한다(2017 pp. 21-37, pp. 129-154: 이영훈 p. 153에서 재인용). 간단히 말하여 ‘특이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영훈(2020, pp. 151-152)은 번역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전문 번역가(professional translator)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번역 업무는 개인적 취향을 동기로 삼거나 사회적 참여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각 분야 애호가, 소비자 및 자원자들에게 나날이 그 문호가 개방되고 있고,

구글 등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기계번역기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보급됨으로써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과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일반인 번역가(layperson translator)’들이 번역가의 전문성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일반인 번역가들이 촉발한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상의 협업번역(collaborative translation) 또는 다중참여 번역(crowdsourcing translation) 방식은 전문 번역가들에게도 점차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윗글에서 알 수 있듯이 인공지능이 번역계에 도입되면서 전문가의 직업적인 행위였던 번역이 일반 대중의 일반적인 취미활동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실이다.

김순미는 크로니이 처음 사용하여 보편화시킨 용어인 ‘위키 번역’(wiki translation)을 사용자가 자신이 선택한 용어로 적절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손쉬운 도구이며, 한정된 숫자의 언어로 정적인 일련의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요구에 맞춘 상호작용을 허용한다고 설명한다(2017b, p. 6). 번역이 번역가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개인화되고 상호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의 일부로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말이다.

김순미(2017b)가 말하는 위키 번역과 이영훈(2020)이 말하는 협업번역 또는 다중참여 번역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디지털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번역 행위를 가리킨다. 군중번역(Crowd Translation)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번역 행위가 요즈음의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개인이 모여 일종의 집단지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기계번역 시스템의 도움으로 급격히 확장되고 있다. 인터넷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무료 통번역 프로그램과 앱이 100개 이상이라는 사실은 번역이 전문번역가의 손에서 일반 대중의 손으로 이전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일반 대중이 손쉽게 번역에 임하고 있다고 하여 전문번역가의 일이 없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번역”이나 “번역회사”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수많은 번역회사가 나온다. 이 숫자는 전보다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문번역가가 하는 일의 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된다. 개인이 손쉽게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번역하는 어찌 보면 사소한 번역도 많이 행해지고 있지만 반드시 전문번역가의 손을 거쳐야 하는 번역도 늘어나고 있음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기술 환경이 새로운 일거리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지선과 김은미(2017, p. 91)는 “세계 바둑을 제패한 인공지능 알파고와 함께 구글은 2016년 11월 번역품질이 급격히 향상된 무료 웹 기반 인공지능 번역 서비스를 개시하였다”는 말로 「인공지능 번역 시스템의 출현에 대한 소고」를 시작한다. 신지선과 김은미는 이 논문에서 기계번역 및 인공지능의 역사를 그 태동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살펴봄과 기계번역의 방법을 규칙기반, 통계기반 및 신경망 기반 등 셋으로 나누어 발전과정 및 양상을 살펴보고 있다. 이들은 신경망기반 방식의 혁신적인 특징을 두 가지로 제시한다. 하나는 “번역 단위가 단어 및 구에서 문장으로 확대되어 문장 내 의미의 흐름 즉 맥락 인식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데이터가 없는 언어도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제로샷 번역(zero-shot translation) 기술이다”(신지선, 김은미, 2017, p. 99). 이들은 동일한 구문을 신경망 기반 기계번역과 통계기반 기계번역을 통하여 실제로 번역해보고 그 결과 신경망 기반 기계번역이 매우 효과적임을 논증한다. 이들은 번역사들이 새로운 테크놀로지 환경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의 변화를 모색하라고 권고한다(신지선, 김은미, 2017, p. 106).

1990년대 중반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저렴해지고 인터넷에서 자막을 붙이는 장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애호가(fan)들이 주석을 붙이는 일은 애호가 번역(fansub)⁴⁾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되었다. 애호가 번역은 웹사이트와 채팅방과 포럼 같은 인터넷 상의 거대한 지역사회로 증명되는 대규모 사회현상이 되었다(Diaz-Cintas and Sanchez, 2006; Spolidorio, 2017, p. 67에서 재인용). 팬덤(fandom)은 애호가(fan)와 왕국(kingdom)으로 만든 합성어로 애호가들의 왕국, 애호가 지역사회라는 의미를 지닌다. 젠킨스, 헨리, 프루쇼마, 위겔, 클린튼, 로빈슨(Jenkins, Purushotma, Weigel, Clinton and Robison, 2006, p. 247) 등은 팬덤이 “매혹과 좌절의 균형에서 생긴다. 만일 미디어의 내용이 우리를 매혹시키지 못하면 그것에 관여하고 싶은 욕망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수준에서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쓰거나 다시 만들고자 하는 충동이 없을 것이다”(Spolidorio, 2017, p. 69에서 재인용) 라고 말한다.

애호가 번역은 한 개인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팬덤 즉 애호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번역물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공동생산은 또한 사용자 생성 번역의 근본적인 측면이다. 소프트웨어가 지역화되면서 사용자 생성 번역이 생겨났고 수립되었다. 왜냐하면 사용자 생성 번역은 포함된 언어에 대한 지식과 번역 전략만이 아니라 번역가가 지니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전의 지식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오헤이건(O'Hagan, 2009, p. 8)은 주어진 지역의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 생산뿐만 아니라 이 활동 배후의 동기를 강조한다. 왜냐하

4) “fansub”의 직역은 “애호가 자막”이지만 본고에서는 “fansub”과 “fansubbing”을 모두 “애호가 번역”(fan translation)과 같은 것으로 보고 같은 이름으로 부른다.

면 지원자(자발적 참여자)들이 “특별한 미디어 내용이나 장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주어진 언어에 대한 지식에 토대를 두고, 또 그 주제에 대한 실제적인 관심을 지니고”(Spolidorio, 2017, p. 77에서 재인용) 번역하기 때문이다.

애호가 번역의 또 하나의 특징은 기술 친숙성과 지식과 임무가 물리적 지리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진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는 방법이다. 최근에 번역과 관련된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생겨났다. 일반적인 영한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어휘를 다양한 용어로 번역하거나 번역하지 않고 영어로 그냥 사용하고 있다. 동일한 것을 다른 용어로 번역한 것도 있고 다른 것을 같은 용어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요즈음의 번역 방법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번역 방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협력 번역(Collaborative translation)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용어는 사용되는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Cordingley and Frigau Manning, 2017). 최근에 이 용어는 기술적 전환의 맥락에서 작업이 주로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온라인 집단 번역 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Pym, 2011, p. 77; Jiménez-Crespo, 2017; 이상빈, 2017, p. 20). 번역가 개인이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이 협력하여 하는 번역을 의미한다.

- 자발적 번역(Volunteer translation)은 번역자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여 행한 일에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는 번역을 의미한다. 자발적 번역과 상반되는 개념은 전통적인 번역, 즉 번역가가 번역료를 받고 하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 비전문적 번역(Non-professional translation)은 전문 번역가가 아닌, 다시 말하여 번역을 본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번역을 의미한다.

다.

- 아마추어 번역(amateur translation)은 비전문적 번역과 매우 유사한 개념으로 번역 주체가 아마추어라는 의미이다. 번역을 배우는 학생이라든지 번역에 처음 입문한 사람이 하는 번역으로, 전문가가 되기 이전에 준비단계에 있는 사람 즉 번역 준비생이 하는 번역을 가리킨다.

- 네티즌 번역(Netizen translation)은 인터넷에 접속한 사람이 하는 번역을 의미한다. 이지민(2017, p. 146)은 네티즌 번역을 “웹 2.0의 인터넷 가상 사회에서 집단적 지능을 활용하는 인터넷 사용자가 행하는 번역”이라고 정의하며 참여자들의 상호작용과 협업이 특징이라고 말한다. 협력번역과 유사한 개념으로 번역 주체를 강조한 용어이다.

- 애호가 번역(Fan translation)은 포괄적인 용어로 애호가에 의한, 애호가를 위한 번역을 가리킨다. 영화의 애호가 번역(Fansubbing), 비디오게임의 애호가 번역 그리고 만화의 스캔번역(scanlation)⁵⁾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행해진다. 그 분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번역을 의미한다.

- 다중참여 번역(crowdsourced translation, crowdsourcing translation)은 페이스북(Facebook), 구글(Google), 트위터(Twitter), 유디스크라이브(YouDescribe)와 같은 기술 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번역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번역 방법이다. 어떤 계획(program)의 특정한 부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 숫자가 명확하게 한정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인재풀(Pool)을 이용하는 번역을 가리킨다. 협력 번역의 개념과 상당히 중복되어 이 두 가지 방법을 명확히 구별하기가 힘들다.

- 공공봉사 번역(public service translation)은 텍스트를 제작한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텍스트

5) Scanlation은 scan과 translation을 합성하여 만든 어휘이다.

를 행정관청이나 어떤 기관이 개입하여 행하는 번역을 의미한다(Taibi, 2011, p. 214; 이상빈, 2017, p. 22에서 재인용). 번역의 발주처가 공공기관이고 번역물의 독자가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대중인 경우의 번역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지역사회 번역(community translation)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 지역사회 번역은 관점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타이비와 오졸린스(Taibi and Ozolins, 2016, p. 10)는 지역사회 번역을 “주류가 아닌 언어의 독자와 공공봉사 또는 공공기관 사이의 글로 쓴 번역을 포함하는 하위 분야”(이상빈, 2017, p. 22에서 재인용)로 규정한다. 펴(2011), 오헤이건(2009), 구아텍(Gouadec, 2007)은 다소 포괄적인 용어라고 말한다. 구아텍(2007, p. 35)은 지역사회 번역이 “다양한 언어(와 문화) 지역사회가 공존하는 특정한 국가 내에서 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모든 번역과 통역”(이상빈, 2017, p. 23에서 재인용)을 포함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 사용자 생성 번역(User-generated translation)은 어떤 전문적인 서술자가 번역물의 사용자일 경우의 번역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번역하는 사람과 번역물의 사용자는 전혀 다른 부류에 속하는데 동일할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다. 이때의 번역을 사용자 생성 번역이라고 칭한다(이상빈, 2017, p. 23).

기술의 변화와 발전으로 인한 번역계의 환경 변화가 이러한 다양한 번역 방법의 활용과 확산을 가져왔다. 사용하는 매체와 번역하는 주체 그리고 번역물의 수혜자에 따라서 번역 방법을 이와 같이 다양하게 구분하는데, 사람이 기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다양한 웹사이트와 에스엔에스(SNS)⁶⁾에 있는 ‘공유’ 기능은 어떤 텍스트의 번역이 예

6)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어이다.

전보다 더욱 많은 독자들에게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Vivian Lee, 2017, p. 38). 디지털 시대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다양한 비전문적인 번역 방법이 출현했다. 또한 자료가 종이 텍스트에서 디지털 텍스트로 변화하면서 목표(번역) 텍스트가 끊임없이 교정, 수정될 수 있게 되었다.

이지민(2017, p. 91)은 “디지털 시대에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온라인 플랫폼과 기계번역을 사용하여 번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중참여 번역 플랫폼이 활발하게 작용하여 전반적인 번역 지형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고 있다. 인터넷은 그 사용자들로 하여금 단순한 정보 소비자에서 정보를 생산사용(produstage: production과 usage의 합성어)하는 생산소비자(prosumer: producer와 consumer의 합성어)로 바꾸었다(이지민, 2017, p. 92). 기계번역이 대중화됨에 따라 누구나 번역하여 그 번역물을 향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점점 더 많은 비전문가들이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더욱 다양한 형태로 번역한다. 그들의 일이 전문적인 연습을 위한 대안으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의 명확한 현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Pérez-González and Susam-Saraeva, 2012, p. 149: 홍정민, 2017, p. 122에서 재인용).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보수와 관계없이 번역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참여번역가라고 하는데, 이들은 관심 있는 분야의 번역을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새로 등장하는 번역가들은 활동, 동기, 자격의 특징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⁷⁾으로 칭한다.

7) 일반인 번역가(layperson translator), 비전문 번역가(non-professional translator), 또는 유사전문 번역가(pseudo-professional translator), 지역사회 번역가(community translator), 다중참여 번역가(crowdsourcing translator), 훈련받지 않은 번역가(untrained translator), 사용자번역가(user translator), 아마추어(amateur), 자원봉사자(volunteer), 참여번역가(participatory translator) 등이

전문 번역가뿐만 아니라 많은 비전문번역가들이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번역 툴을 이용하여 번역한다. 기계와 인간의 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기계번역 관련 기술은 문법 규칙을 번역에 적용한 규칙기반 기계번역(RBMT, Rule Based Machine Translation)과 병렬 코퍼스를 바탕으로 통계적 모델링에 근거하여 번역을 수행하는 통계기반 기계번역(SMT,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두 가지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2016년에 컴퓨터 스스로 가중치를 두어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를 비교하고 최적의 데이터를 도출하여 자동으로 학습 및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신경망 기반 기계번역(NMT, Neural Machine Translation)이 개발되면서 인공지능 기계번역 시대로 발전하였다(김상식, 2017, pp. 4-5; 장애리, 2019, p. 167).

신경망 기반 기계번역은 번역 기억(TM: Translation Memory)을 훈련시키는 점에 있어서는 통계기반 기계번역과 동일하지만 번역 기억을 훈련시킬 때 인위적인 신경망을 사용하여 심층학습을 하도록 하는 점이 다르다. 신경망 기반 기계번역은 통계 기반 기계번역 모델에서 발전한 것으로 스스로 언어 규칙을 학습한다. 신경망 기반 기계번역은 예전의 개념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롭게 탄생한 것이 아니라, 통계기반 빅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딥러닝(deep learning) 방법론을 통계 기반 번역 모델에 도입한 것이다(조준형, 2019, p. 159). 바로 이 부분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과 기계의 접점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인간 통번역가가 생산한 고품질의 번역 텍스트뿐이고 이 이외의 다른 것은 없다. 인간은 번역 행위를 통해서 번역 텍스트를 생산하고 연구자는 이를 활용하여 연구하고 교육하며, 기계는 이를 바탕으로 학습하고 인간의 번역 기술을 습득한다(조준형, 2019, pp. 159-160).

그것이다(홍정민, 2017, p. 123)

현재 신경망 기반 기계번역을 할 수 있는 기기와 프로그램으로 구글 번역(Google Translate), 마이크로소프트 번역기(Microsoft Translator), 시스트란 순수 신경망 기계번역(Systran Pure Neural Machine Translation), 네이버 파파고(Naver Papago), 바이두(Baidu), 페이스북(Facebook) 등이 있으며 아마존(Amazon)도 신경망 기반 기계번역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한다(이지민, 2017, p. 98). 이지민(2017, p. 116)에 따르면 구글은 지금 텍스트의 단순한 번역을 넘어 정서적인 번역 능력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이 능력은 사용자들에게 특정한 텍스트를 읽은 후 어떻게 느끼는지를 묻는다. 읽은 후의 느낌을 모아서 일반화하고자 기계가 모으고 축적하는 일을 하지만 특정한 느낌을 느끼는 것은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이지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이 발전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기계번역과 번역 기억은 전문 번역가가 아닌 다양한 이름의 번역가들의 부족한 언어능력을 보충할 수 있다(김순미, 2017a, p. 76; 홍정민, 2017, p. 134). 유창한 언어 구사 능력과 텍스트 처리기술은 대학교나 대학원 같은 공식적인 기관에서 실시하는 번역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더욱 잘 발달할 수 있기에 전문 번역가는 대부분 이런 기관에서 배출된다. 예전에는 언어와 기술을 학습할 장소가 이런 기관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컴퓨터와 인터넷 번역 기기를 이용하여 언어와 기술의 부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홍정민(2017, p. 134)이 말하듯이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는 번역가들이 물리적 거리와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장애리(2019, p. 164)는 「중국의 인공지능(AI) 통역 발전 현황 분석」에서 중국에서는 “기계번역에 적용되는 인공신경망 기술뿐 아니라 음성과 사진 및 텍스트 인식을 위한 AR과 VR⁸⁾ 등 각종 첨단기술”의 개발

8) AR은 가상현실(Artificial Reality), VR은 인터넷 상의 가상현실(Virtual

에 거대 인터넷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괄목할만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중국에서 “신경망 기술과 빅데이터, 음성 인식 및 합성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인공지능이 적용되면서 기계통번역 분야가 급속하게 발전하였다”고 밝힌다(2019, p. 163). 중국어-영어 번역의 경우에는 코퍼스가 많기 때문에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기술 문서 번역에서도 번역 품질이 매우 향상되었다고 한다. 영어권 위주의 인공지능 번역 기술 발전에 자극을 받은 중국이 거대한 인구와 막대한 자본을 무기로 인공지능을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어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인공지능 기반 기계번역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 명확해 보인다. 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는 독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기계번역을 과도하게 경원시하거나 신성시할 필요는 없다. 또한 지나치게 두려움을 갖거나 적대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오히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대응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상호보완적인 공존과 협업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장애리, 2019, p. 191). 시대적인 흐름이 이러하다면 이에 거스르기 보다는 순응하여 적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예전에 펜으로 원고지에 쓰면서 번역을 하던 것이 타자기가 개발되면서 타자기를 이용하여 번역을 하는 것으로 바뀐 것과 마찬가지로, 독자들은 대부분 원고지에 번역하거나 타자기를 이용하여 번역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였으리라고 짐작된다. 컴퓨터와 함께 성장하였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번역 작업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번역 작업을 수행하면 된다.

조준형(2019, p. 160)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번역학 관련 학회에서 제 4차 산업혁명과 번역에 대한 주제로 발표되는 연구 및 학술대회가 많이

Reality)을 가리킨다.

늘어났다고 하며 “핵심은 곧 인간과 기계가 어떻게 협력해서 이론과 실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관한 주장”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밝힌다. 기계번역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번역가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기계번역과 인간 번역가는 공생관계”(Si, 2017)를 이룰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번역가는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조성은도 2014년에 발표한 「영상번역 연구의 동향과 전망」에서 이제 번역학은 “영상 전환기(audiovisual turn)의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Remacl, 2010, p. 15: 조성은, 2014, p. 206에서 재인용)고 말하며 급변하는 시대환경과 번역환경을 반영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컴퓨터기술의 발전과 광대역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가 조직적으로 성장하고 진화함에 따라 애호가 번역은 이제 당당한 “사용자가 생성한 번역(user-generated translation)”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O'Hagan, 2009, p. 5), 더 이상 아마추어 환경에서 진행되는 활동이 아닌 영상 번역 연구뿐만 아니라 미디어연구와 문화연구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되었다(조성은, 2014, pp. 218-219). 현실적으로 인공지능 기계번역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에 와 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최수연(2017)은 2016년 3월에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결인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Google DeepMind Challenge Match)가 열렸다는 말로 「번역학의 ‘기술적 전환’(Technological Turn): AI시대의 영상번역」을 시작한다. 이 세기적인 바둑 대결에서 사람들은 인간인 이세돌의 승리를 기대했지만, 기계인 알파고가 승리했다. 이후 모든 산업분야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를 두려움 속에서 반기며 많은 논의가 촉발되었다. 통번역 현장과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반영하여 세종대학교에서 2017년 2월 21일 인간번역과 인공지능 번역의 대결이 열렸다. 결과적으로 인간번역의 승리였지만, 이 결과에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전망도 이어졌다. 신경망 기반 기계번역이 공개된 지 불과 4개월 뒤(최수연, 2017, p. 207)에 열린 행사였기에 앞으로 인공 지능 번역의 품질이 더욱 향상되리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계와 인간의 번역 대결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것은 2017년이었지만 미국에서 기계번역이 처음 시연된 것은 1954년 1월 7일이었다. 조지타운 대학과 IBM에서 러시아어 텍스트를 영어로 전환한 것이었다. 이 때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는 “이 분야를 계속 연구해온 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수년 내로 이 시스템이 번역을 신속하고, 정확하며, 쉽게 수행함으로써 특히 기술 분야에서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이 대폭 증가될 것이라 믿고”(1954. 1. 8.; 이영훈, 2020, p. 166 재인용)있다고 보도하였다. 이 때 시연한 것은 250 단어 규모의 번역이었지만 66년의 세월이 흐른 2020년 현재 엄청난 규모의 어휘와 언어를 기계가 내장하고 있어 대단한 번역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기계번역, 특히 인공지능을 이용한 기계번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인간의 정서적인 문제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하여 기계번역이 급속하게 발전하였지만 인간의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계번역이 도래하기까지 매우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2. 번역교육

상황인식의 변화가 기술통합적 번역학 연구 및 번역가 교육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이영훈, 2020, pp. 166-167). 송연석(2018, p. 120)은 「기계번역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

찰」에서 “기계번역의 원리에서 출발하는 연역적 접근을 통해 기계번역 모델, 번역품질 평가, 상용화 관점에서 각각 기계번역 담론을 조명하고 번역 연구자와 교육자로서” 대응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그는 기계번역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척도인 BLEU⁹⁾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BLEU는 인간의 번역평가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Hovy, 1999)을 극복하기 위해 파피네니, 살림, 토드, 웨이징(Papineni, Salim, Todd and Wei-Jing, 2002)이 제안한 자동 기계번역 평가방법으로, “기계번역물이 인간 전문가의 번역물에 가까울수록 품질이 좋다”가 기본 전제다. 이에 따라 BLEU 평가시스템은 인간번역과의 “유사성(closeness)”을 평가할 척도와 “양질의 인간 준거번역물 코퍼스”(p. 311) 두 가지 필수 요소로 구성된다. (송연석, 2018, p. 128)

기계번역의 결과물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간이 생산한 결과물에 유사한 정도라는 말은 기계번역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인간의 통제 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송연석(2018, pp. 134-136)은 기업이나 개인이 구글이나 네이버같이 공개된 번역 적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번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를 든다. 첫째

9) BLEU는 두 나라 말 평가 대역(bilingual evaluation understudy)의 약자로 한 자연어를 다른 자연어로 기계번역한 텍스트의 질을 평가하는 알고리즘이다. “기계번역의 결과물이 전문 번역가의 결과물에 유사할수록 더욱 좋다고 평가한다”는 것이 BLEU의 주된 개념이다. 점수는 일반적으로 문장 단위로 계산되는데, 이 점수의 평균으로 번역물의 전반적인 품질을 평가한다. 문장의 명료함이나 문법적 정확성은 고려요소가 아니다. 점수는 0에서 1까지로 주어지는데 1에 가까울수록 전문 번역가의 번역에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https://en.wikipedia.org/wiki/BLEU>).

기술개발의 난이도, 둘째 기업의 기밀유지 필요성, 셋째 번역 적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개발에 투입되는 자본금 대비 효용성 및 확장성, 넷째 사후 편집 비용, 다섯째 가독성과 설득적 효과, 여섯째 서버유지 및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이다. 또한 지금 까지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공개된 번역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번역은 사실상 전문번역가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모든 번역이 기계번역으로 대체되고 자동화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지금도 기업에서 특정한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로 수출할 때 제품 설명서 등을 수요가 있는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한다. 이때 대부분 번역회사에 번역을 위임하는데, 번역회사는 기계번역을 기본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인공지능이 더욱 발전하여 이 회사들이 보다 우수한 인공지능을 장착한 기계를 사용하면 더 많은 번역이 기계번역으로 대체될 것이다. 물론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거나 또는 매우 중요한 기밀서류 등 일부의 번역은 자동화에 맡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관건은 인공지능의 발달 내지는 발전 여부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최수연(2017, p. 210)은 앞으로 번역 현장에서 “IT 관련 지식과 기술”(Mackenzie, 2004, p. 32) 등 예전에는 번역에서 주변적 위치를 차지 하던 요소들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송연석(2018, pp. 132, 136)도 현재의 언론 주도 기계번역 담론은 실제 시장에서의 구현 시기와 적용 문제는 간과한 채 당장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하며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늘고 비전문가 번역 까지 확산되고 있는 현 추세에서는 단순 정보전달 수준의 번역 또는 일반인의 접근성이 좋고 재미나 보람 등 심리적 보상이 동기가 되는 번역은...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다. 현실적으로 경쟁력을 갖

준 전문번역가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번역은 기계번역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인정하고 기계번역의 효용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조준형(2019, p. 156)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번역학의 방향」에서 빅데이터로서의 코퍼스의 역할과 기능을 논하고 있다. 그가 말하듯이 오래 전부터 시작된 자동화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무기로 더욱 강력하고 더욱 지능화된 자동화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그는 국내 코퍼스 연구 환경이 열악한 이유는 연구자 개인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코퍼스 자체의 열악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언어별로 다양한 형태의 코퍼스가 구축되어 있지도 않고 연구소나 연구원 차원에서 구축된 소수의 코퍼스 이외에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코퍼스가 매우 부족하다고 현실을 진단한다(p. 176). 그의 진단은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적어도 우리말의 방대한 코퍼스를 만든다면 번역연구와 번역가의 실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방대한 코퍼스가 마련된다면 기계번역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고 번역과 번역 교육 그리고 번역 산업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하여 번역과 번역 교육 그리고 번역 산업의 환경이 거의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시기에 번역계가 나아갈 방향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기계와의 공존 내지는 협업임이 분명하다. 여기에서 문제는 어떻게 공존하고 어떻게 협업하는가이다. 조준형(2019, p. 156)은 기계번역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하여 “경계의 개념과 실시간 번역 그리고 사후 편집과 관련된 새로운 번역 화두”가 대두되었다고 한다. 이지민(2017, p. 117)은 번역가는 번역 기억을 만드는데 있어서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사후 편집자로 활동하면서 효과적인 사후 편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본다. 최수연(2017, pp. 217-218)은 영상번역가는 기술 활용 전문가와 창조적 감수자의 역할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송연석(2018, p. 136)은 번역문서에 대한 사후 편집과 사전 편집 기술과 번역 적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과 번역능력을 겸비해야한다고 말한다. 서보현과 김순영(2018, p. 110)은 “인간과 기계의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기계번역 결과물을 수정 및 개선하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표적인 것”이 사후 편집 작업이라고 한다. 학자들의 의견의 공통점은 번역가가 앞으로 사후 편집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신지선은 2020년 10월에 발표한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에 관한 해외 연구 동향」에서 연구 목표를 “기계번역의 장단점, 활용 가능성, 한계 및 문제점, 개선 사항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유념해야 할 기계번역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p. 88)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기계번역 사후 편집과 관련하여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분야를 열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간략히 소개하고 그 중에서 생산성 비교, 사후 편집자 탐구, 결과물 평가, 사후 편집 교육 및 훈련 등 네 가지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pp. 92-97).

일반적으로 번역과 사후 편집은 동일한 것 내지는 사후 편집을 번역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지만 번역과 사후 편집은 다른 작업이다. 신지선(2020, p. 106)은 번역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사후 편집을 교육할 때 번역과 사후 편집의 차이를 작업 과정을 중심으로 이해시키고, 사후 편집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번역 능력과 비교 대조하여 소개하며, 사후 편집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강조하는 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후 편집을 교육할 때에는 교육 내용, 교수법, 물리적 환경, 기자재, 교재 등 수업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서 번역 수업과는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한다(p. 96).

서보현과 김순영도 2020년 9월에 발표한 「번역사의 번역교육 경험

이 포스트에디팅 결과물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에서 산업현장에서 이루어진 사후 편집 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번역교육이 사후 편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사후 편집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전문 주제지식 교육과 기존 번역문의 감수와 교정 교육을 강화하여 사후 편집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하며, 사후 편집 과정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교육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p. 87).

송연석(2018, p. 136)은 번역교육 커리큘럼을 두 트랙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하나는 기존의 톨사용번역 능력에 더하여 기본 코딩능력을 포함한 기계번역 프로그램을 활용 및 관리하는 기술적 능력과 번역결과물을 평가/설명/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는 과정이고 또 하나는 인문학 장르에 대한 번역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이다. 번역교육에서 이 두 가지 능력의 배양에 힘써야 한다는 점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한다. 동의하는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결국은 기계이기 때문에 이를 잘 다루는 능력과 사전 편집, 사후 편집을 하는 능력을 갖춘 번역가는 시대적인 변화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창조성과 감수성은 기계가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3. 정리하기

인공지능이 촉발한 산업혁명을 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 기술 혁신이 노동 시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두 가지 상반되는 의견이 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새로운 직업에서 새로

운 일자리를 갖게 되고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가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기술이 발달하여 실업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사회적, 정치적 대혼란 일어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이다(슈밥, 2016, p. 67; 최수연, 2017, p. 217). 제 4차 산업혁명으로 모든 산업이 데이터화 되고 인공지능화 되면서 지금도 경험하고 있듯이 많은 직업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겠지만 많은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이다. 물론 그 사이에 상당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2016년에 열린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에서 2020년까지 5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단순 사무 및 행정직 등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진국과 신흥시장 등 15개국에서 컴퓨터, 수학, 건축, 엔지니어링 등과 관련된 2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지만, 결국 51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리라고 예측했다. 단순 사무직, 단순 생산직 뿐만 아니라 회계사, 의사, 증권전문가, 변호사 등의 전문직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이라고 했다(최희섭, 2017, p. 4). 5년이 지난 2020년 12월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었지만 다보스포럼의 예측은 크게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

번역계에서는 지금과 같이 번역가가 컴퓨터 앞에 앉아 혼자 번역하는 일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듯이 일반적인 번역은 인공지능을 장착한 컴퓨터가 할 것으로 짐작된다. 이 경우 번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다음 두 가지 모두 또는 이 중 하나라는 점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하나는 컴퓨터가 산출한 번역물을 감수, 내지는 검수하는 일, 즉 사후 편집이다. 사후 편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잘 다루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컴퓨터를 잘 다루는 능력에는 일반적인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번역(computer assisted translation)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번역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다루는 능력과 같은 기계번역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는 능력도 포함된다.

다른 하나는 인간의 정서적인 면, 창조적인 면과 관련되어 있다. 인공지능이 매우 발전하여 인간과 거의 유사한 말을 하고 번역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느끼지는 못할 것이다. 아주 먼 미래에는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인간이 느끼는 감정에 따른 신체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과 매우 유사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만들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기계가 유사 감정 체험까지는 유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감정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번역가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 인간의 정서를 다루는 문학번역은 결국 인간 번역가의 손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영훈(2020, p. 152)이 말하듯이 인공지능이 보편화되는 미래에는 번역가가 인공지능과 친숙해야하며 단순히 텍스트의 언어를 변환하는 번역 작업뿐만 아니라 교정, 편집, 기획, 출판, 마케팅 등의 다양한 기능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번역회사와 앞에서 이야기한 다양한 부류의 번역가 및 독자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번역가는 단지 한 종류의 자연어를 다른 종류의 자연어로 변환하고 다른 일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언어의 변환은 대부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고 미묘한 감정과 정서를 다루는 문제와 다양한 번역 외적인 일에 전문성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짐작된다. 교육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실시해온 구태의연한 방법은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언어의 숙달능력 향상에 힘을 기울였다면 다양한 인공지능 기기를 숙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후 편집능력 배양에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상식 (2017) 「자동 통번역에 대한 국내외 기술 시장 동향」, 『융합 Weekly TIP』 66: 2-16.
- 김순미, 신호섭, 이준호 (2019) 「번역학계와 언어서비스업체(LSP) 간 산학협력연구」, 『번역학연구』 20(1): 41-76.
- 서보현·김순영 (2018) 「기계번역 결과물의 오류유형 고찰」, 『번역학연구』 19(1): 99-117.
- 서보현·김순영 (2020) 「번역사의 번역교육 경험이 포스트에디팅 결과물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번역학연구』 21(3): 63-91.
- 송경진 역 (2016)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서울: 새로운 현재. Klaus, S.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송연석 (2018) 「기계번역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번역학연구』 19(1): 119-145.
- 신지선·김은미 (2017) 「인공지능 번역 시스템의 출현에 대한 소고」, 『번역학연구』 18(5): 91-110.
- 신지선 (2020)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에 관한 해외 연구 동향」, 『번역학연구』 21(4): 87-114.
- 윤애선 (2019) 「『디지털 바벨탑』 세우기, 어디까지 왔나? -프-한 기계번역의 현황과 전망」, 『불어불문학연구』 117: 157-199.
<https://en.wikipedia.org/wiki/BLEU> (2020.12.5.)
- 이노신·이신재·이재영·이주희 (2016) 「통번역의 미래지평: 인공지능과 소통형 융합통번역 연구」, 『번역학연구』 17(2): 65-89.

- 이영훈 (2020) 「번역공학적 이성 비판: 디지털 시대 번역학의 과제」, 『번역학연구』 21(4): 151-172.
- 이지민 (2014) 「집합지성과 네티즌 번역 특징에 관한 탐색적 사례 연구」, 『번역학 연구』 15(4): 141-166.
- 장애리 (2019) 「중국의 인공지능(AI) 통역 발전 현황 분석」, 『번역학연구』 20(5): 163-195.
- 조성은 (2014) 「영상번역 연구의 동향과 전망」, 『번역학연구』 15(2): 205-224.
- 조준형 (2019)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번역학의 방향: 빅데이터로서의 코퍼스의 역할과 기능」, 『번역학연구』 20(2): 153-182.
- 최문선 (2019) 「국내 번역학 기계번역 연구 동향: 내용 분석과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 『언어학연구』 24(1): 275-297.
- 최수연 (2017) 「번역학의 ‘기술적 전환’(Technological Turn): AI 시대의 영상번역」, 『번역학연구』 18(2): 207-228.
- 최희섭 (2017)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는 번역가의 자세」, 『한국번역학회 2017 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4.
- 한국대학신문 (2020.11.20.) [UCN PS 2020] “AI 도입 교육혁신 통해 한국 대학이 최전선에 서야”.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36999>
- Cordingley, A., & Frigau Manning C. (2017). What is collaborative translation?. In A. Cordingley & C. Frigau Manning (Eds.), Collaborative translation: From the Renaissance to the digital age. London: Bloomsbury.
- Cronin, M. (2010). The expanding world: Translation, mobility, and global

- futures. In M. Baker, M. Olohan & M. Calzada Perez (Eds.), *Text and context* (pp. 303-318). Manchester: St. Jerome.
- Cronin, M. (2013). *Translation in the digital age*. New York: Routledge.
- Diaz-Cintas, J., & Muñoz Sanchez, P. (2006). Fansubs: Audiovisual translation in an amateur translation. *The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4(2), 37-52.
- Doherty, S., & Kenny, D. (2014).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a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syllabus for translation students.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8(2), 295-315.
- Fernandez Costales, A. (2012). Collaborative translation revisited: exploring the rationale and motivation for volunteer translation. *Forum*, 10(1), 115-142.
- Ganascia, J.-G. (2017). *Le mythe de la singularité : Faut-il craindre l'intelligence artificielle*. Paris: Seuil.
- Garcia, I. (2010). The proper place of professionals (and non-professionals and machines) in web translation. *Tradumatica* 8. <http://ddd.uab.cat/pub/tradumatica/15787559n8/5787559n8a2.pdf>.
- Gouadec, D. (2007). *Translation as a profession*. Amsterdam: John Benjamins.
- Hovy, E. H. (1999). Toward finely differentiated evaluation metrics for machine translation. In *Proceedings of the eagles workshop on standards and evaluation*, (pp. 127-133).
- Jenkins, H., Purushotma, R., Weigel, M., Clinton, K. & Robison, A. J., (2006). *Confronting the challenges of participatory culture: Media*

-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Massachusetts: MacArthur.
- Jiménez-Crespo, M. A. (2017). Crowdsourcing and online collaborative translations: Expanding the limits of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John Benjamins.
- Kim, S. (2017a) Crowdsourced translation in the digital era: Focusing on Viki fansubbing community.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18(2), 67-96.
- Kim, S. (2017b). New trend in translation in the digital age: Participatory translation practices.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18(4), 5-11.
- Lee, J. (2017). Crowdsourced translation and machine translation and their implications in the digital age: A case study of Flitto.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18(4), 91-120.
- Lee, S. (2017). Audio description in the digital age: Amateur describers, web technology and beyond.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18(4), 13-34.
- Lee, V. (2017) Translation in the digital age: SNS and its translation in the classroom.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18(4), 35-60.
- Mackenzie, R. (2004). The competencies required by the translator's role as a professional. In K. Malmkjaer (Ed.), *Translation in undergraduate degree programmes* (pp. 31-38),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O'Hagan, M. (2009). Evolution of user-generated translation: Fansubs, translation hacking and crowdsourcing. *Journal of Internationalisation and Localisation*, 1(1), 94-121.

- Papineni, K., Salim, R., Todd, W. & Wei-Jing, Z. (2002). BLEU: a Method for automatic evaluation of machine translation. In Proceedings of the 40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pp. 311-318).
- Pérez-González, L. (2007). Intervention in new amateur subtitling cultures: A multimodal account. *Linguistica Antverpiensia*, 6, 67-80.
- Pérez-González, L. & Sebnem S.-S. (2012). Non-professionals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Participatory and engaged perspectives. In L. Pérez-González & S.-S. Sebnem (Eds.), *The Translator*, 18(2), 149-165.
- Perrino, S. (2009). User-generated translation: The future of translation in a Web 2.0 environment. *The Journal of Specialized Translation* 12. http://www.jostrans.org/issue12/art_perrino.php.
- Pym, A. (2011). Translation research terms: A tentative glossary for moments of perplexity and dispute. In P. Anthony (Ed.), *Translation Research Projects*, 3, 75-110. http://www.intercultural.urv.cat/media/upload/domain_317/arxiu/TP3/pym.pdf.
- Remael, A. (2010). Audiovisual translation. In Y. Gambier & L. van Doorslaer (Eds.),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1* (pp. 12-17).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Si, J. (2017. 5. 23). Combination of human translation and machine translation - CEO of translation platform Flitto, Jeongsoo Lee. Chosunpub.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2&mcate=M1001&nNewsNumb=20170524802&nidx=24803>.

- Spolidorio, S. (2017). Fansubbing in Brazil: Fan translation and collaborative production in light of Participatory Culture,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18(4), 61-89.
- Taibi, M. (2011). Public service translation. In K. Malmkjaer & K. Windle (Eds.), *The Oxford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pp.214-227), Oxford: Oxford UP.
- Taibi, M., & Ozolins, U. (2016). *Community translation*. London: Bloomsbury.

최희섭

전주대학교 명예교수

choihiesup@hanmail.net

관심분야: 번역학, 비교문학, 영문학

논문투고일: 2020년 12월 19일

심사완료일: 2021년 1월 26일

게재확정일: 2021년 2월 23일

『번역·언어·기술』 편집규정

(2019년 11월1일 제정)

제1장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동국대학교 번역학연구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구성)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 내외로 편성한다.
2. 편집위원장과 위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에 따라 선출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3조(기능)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번역·언어·기술(*TransLinguaTech*)』의 논문 투고 및 심사 기준을 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소집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투고 규정

제4조(자격)

논문투고 자격은 원칙적으로 번역과 언어 및 관련 기술 연구에 관심 있는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의 전공자나 연구자로 한다. 다만 석사과정생의 경우는 지도교수의 추천과 편집위원장의 결정을 필요로 한다.

제5조(대상)

본 학술지의 게재 대상은 번역과 언어, 또는 번역기술과 관련된 연구논문으로 하되, 인접학문의 이론을 접목한 통역번역 관련 연구논문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된 학술적 성격의 심포지엄 또는 세미나의 발표문도 포함할 수 있다.

제6조(방법)

1. 논문 투고는 마감일(1월 15일)까지 온라인 논문투고사이트 (<http://submissiontrans.dongguk.edu/Login>)로 한다. 다만 논문의 투고 규정이나 작성 요령을 지키지 않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송한다.
2. 투고 시 투고자의 이름이나 소속 신분을 알 수 있는 사항이 삭제된 파일과 포함된 파일 각 1부씩을 온라인 논문투고사이트에 업로드한다.
3. 접수 시 연구윤리서약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제7조(논문저자 윤리)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을 발표할 수 있다.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었거나 발표 예정이어서는 안

된다.

제8조(원고 분량)

학술논문은 A4용지 20페이지 내외로 하고 A4 용지 30페이지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원고작성방법)

원고는 아래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학술지 논문작성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게재여부)

기고문의 채택 여부, 게재 순서 및 체재에 관한 사항은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장 심사 규정

제11조(절차)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에서 학술 활동이 뛰어난 전문가를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 비회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때 심사호지의 투고자는 제외한다.
2. 투고된 논문은 각 3명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비공개 의뢰되며, 각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서’에 기재된 심사기준을 근거로 심사하고 평가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 심사 의뢰 시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에게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 및

기타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4.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논문 게재 여부를 정하고 심사결과는 편집위원장 명의로 저자들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제12조(심사기준) 투고된 논문은 다음의 기준으로 엄정하게 심사한다.

- 1)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10점)
- 2) 논문 주제의 창의성(10점)
- 3) 연구 방법의 적절성(10점)
- 4) 논리적 구성 및 전개(10점)
- 5) 내용의 완결성 및 타당성(10점)
- 6)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10점)
- 7)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10점)
- 8) 논문초록의 적합성(10점)
- 9) 기타 편집규정 준수 여부(10점)
- 10)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10점)

제13조(심사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이 내린 심사결과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판정하여 온라인으로 통보한다.

- 90점 이상: 게재가
- 89~75점: 수정 후 게재
- 60~74점: 수정 후 재심사
- 59점 이하: 게재 불가

제14조(심사판정 후 논문수정)

1.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수정한 원고를 제출하도록 한다.

2.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반드시 ‘수정제외서’의 수정 요청 사항을 참고해 논문을 수정한 후 수정 요청 사항 반영 결과를 별도로 정리한 ‘수정이행서’를 수정한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 담당 편집위원의 확인을 받는다. 심사위원의 수정 요청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근거를 밝힌 ‘반론서’를 제출한다.
3.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재심사를 거쳐 게재한다. 이 때 투고자는 ‘수정제외서’의 수정 요청 사항을 반영한 결과를 별도로 정리한 ‘수정이행서’를 수정한 원고와 함께 제출하고 재심사 판정을 부여한 심사위원들은 해당 ‘수정이행서’와 수정된 원고를 바탕으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이의신청)

1. 심사의 결과를 통보 받은 투고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일 이내에 해당 사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2. 해당 사유서를 접수한 편집위원회는 해당 심사위원을 출석시켜 그 내용을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3. 소명 결과 편집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게재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원고에 한하여 새로운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재심하며 해당 절차와 결과의 처리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4.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편집 및 심사, 발행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기록하여 문서로 작성, 보관한다.

제4장 발행 규정

제9조(명칭)

이 규정은 번역학연구소 학술지 『번역·언어·기술(*TransLinguaTech*)』 발행규정이라 한다.

제10조(목적)

이 규정은 번역학연구소 학술지 『번역·언어·기술(*TransLinguaTech*)』의 발행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발행시기)

매년 1회 2월 28일에 발행하고, 필요한 경우 발행 횟수를 늘린다.

제12조(발행인)

학술지 『번역·언어·기술(*TransLinguaTech*)』의 발행인은 번역학연구소장 명의로 한다.

제13조(저작권)

투고된 논문은 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와 연구소 공동 소유로 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따라서 동 논문 전체 혹은 부분을 재수록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저자와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형식)

논문집의 형식은 다음을 따른다.

1. 논문집 앞면 표지에 한글과 영문으로 논문명을 명기하고, 발행호수, 발행처명 및 로고, 발행년월, ISSN 번호를 명기한다.
2. 논문집 뒷면 표지에는 영문으로 발행처명 및 로고를 명기한다.
3. 논문집에는 목차, 주제어 목록, 학술논문, 논문규정(편집위원회규정, 투고규정, 심사규정, 발행규정, 연구윤리규정, 기타규정), 편집위원명단 등을 수록한다.
4. 수록 논문 마지막 페이지 좌측 하단에 논문투고일, 심사완료일, 게재 확정일을 밝힌다.

제5장 기타 규정

제13조(책임)

1. 저자의 책임: 원고 작성 시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저자가 책임을 진다. 논문심사는 익명으로 이루어지므로 저자의 인적 정보를 드러내지 않도록 한다.
2. 심사자의 책임: 논문 심사자는 심사논문에 대하여 학술적 가치 판단 및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며, 결함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한다. 필요할 경우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편집위원회 심사자는 원고에 대한 저자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저자의 사전 동의 없이 원고 전체 및 일부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심사평가지 저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게재가 확정되거나 게재된 이후에도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적이 있거나 무단 도용이 밝혀질 경우 편집위원회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

하고 이후 2년 동안 논문 투고를 제한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번역·언어·기술』 원고 작성 및 투고 방법

(2019년 11월1일 제정)

1. 원고: 아래한글로 작성한다.
2. 언어: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한다.
3. 논문길이: 20매 내외로 하되, 최대 30매를 넘지 말아야 한다.
4. 영문초록: 서론 앞에 15행 내외로 작성하고 초록 하단에 키워드를 영어와 한국어로 각각 5개씩 표기한다.
5. 논문의 서식:
 - ① 편집 용지 — 용지종류(사용자정의, 폭 130, 길이 200)
 - ② 글자 모양(본문기준) — 한글은 신명신명조 10(줄간격 162%),
장평: 93(본문기준), 자간: -8(본문기준)
 - ③ 여백 주기 — 위쪽: 15.0, 아래쪽: 15.0, 왼쪽: 15.0, 오른쪽:
15.0, 머리말: 12.0, 꼬리말: 12.0
 - ④ 논문 제목은 신명태명조 14(가운데 정렬)로 하고 한줄 띄운 뒤 필
자명(신명조 10, 오른쪽 정렬, 글자 당 간격 1 space)을 기입한다.
 - ⑤ 기타 글자 크기 — 소제목: 신명태명조 11, 표와 그림의 제목: 중
고딕 7.5, 표 안의 글자: 신명신명조 9, 각주: 신명신명조 9(줄간격
145%), 직접인용: 신명신명조 9(줄간격 150%, 좌우여백 15.0pt)
 - ⑥ 영문초록 — Times New Roman 10(줄간격 162%), 제목은 이
탤릭체, 양쪽맞춤
 - ⑦ 참고문헌 — 국문서적은 신명신명조 10(줄간격 162%), 영문서적

은 Times New Roman 11(줄간격 162%)

⑧ 자세한 서식규정은 번역학연구소가 제공하는 논문서식(hwp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6. 각주: 인용문의 출처를 밝히는 외에 주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면 하단에 단다.
7. 공동저자 표기: 2인 이상이 집필한 논문의 경우, 제1 저자를 앞에 쓰고 나머지 필자를 '가나다' 또는 'ABC' 순으로 기재하며, 제1 저자가 없는 공동 집필의 경우에는 저자들을 '가나다' 또는 'ABC' 순으로 기재한다.
8. 본문에 언급된 모든 문헌을 빠짐없이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한다. 참고문헌은 국내 참고문헌을 먼저 기재하고 외국 참고문헌을 기재한다.

〈참고문헌 예시〉

김순영, 이경희 (2012) 「 「대성당」 번역본의 문체적 특성 고찰 」, 『번역학연구』 13(1): 33-58.

조의연 (편저) (2014) 『번역문체론』, 서울: 한국문화사.

Davis, R. C., & Schleifer, R. (Eds.). (1998). *Contemporary literacy criticism: Literary and cultural studies*. New York: Longman.

Grauberg, W. (1989). Proverbs and idioms: Mirrors of national experience?. In G. James (Ed.), *Lexicographers and their works* (pp. 94-99). University of Exeter, 94-99.

Hatim, B., & Mason, I. (1990).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London: Longman.

Al-Jubouri, A., & Knowles, F. (1988, March 3-4). A

computer-assisted study of cohesion based on English and Arabic corpora: An interim report. In *Proceedings of the 12th International ALLC Congress*. The 12th International ALLC Congress, Geneva (pp. 98-110). ALLC.

9. 이상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양식을 따른다.
10. 투고문 첫 페이지에는 제목, 저자명과 소속, 영문 저자명, 영문 제목, 영문 초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1. 투고문 마지막 페이지에는 저자명과 소속, 이메일 연락처와 관심분야를 기재한다.
12. 투고는 마감일(매년 1월 15일)까지 온라인 논문투고사이트 (<http://submissiontrans.dongguk.edu/>)로 한다.
13. 심사자의 의견 및 수정에 관한 제안을 투고자에게 보내면, 투고자가 마감기한까지 수정된 원고를 제출하여야 게재 가능하다.

『번역·언어·기술』 논문 작성 양식

(2019년 11월1일 제정)

번역 및 언어현상이나 관련 기술 연구

[신명 태명조 14, 가운데 정렬]

[신명조 11, 오른쪽 정렬, 글자당 간격 1space]김 동 국

[신명조 10, 오른쪽 정렬](동국대)

[한 줄 띄기, 줄간격 162%]

Kim, Dongguk. *A Study on the Translation, Language* [Times New Roman 10, 이탤릭체]

This study explores the ways...[Times New Roman 10, 162%,]

[한 줄 띄기, 줄간격 162%, 휴먼고딕 9][주제어 5개 제시]

▶ Key Words: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language,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 키 워 드 : 한국 문학, 번역, 언어, 기술, 인공지능

[초록은 영어로 작성한다. 길이는 15행 내외로 하며 초록 하단에 한국어와 영어 주제어(Key Words)를 각각 5개씩 제시한다.]

[두 줄 띄기, 줄간격 162%]

1. 서론

[신명 태명조 11, 가운데 정렬]

[한 줄 띄기, 줄간격 162%]

본 연구는 번역, 언어 또는 관련 기술에 대한... [신명 신명조 10, 줄간격 162%, 들여쓰기 15]

[두 줄 띄기, 줄간격 162%]

2. 산업 번역

[신명 태명조 11, 가운데 정렬]

[한 줄 띄기, 줄간격 162%]

2.1 인공지능번역 [신명태고딕 10, 들여쓰기 15]

실제로 기계 번역, 즉 AI 번역의 오류는 빈번하다. 아직 AI가 문법은 물론 문장의 맥락을 읽어낼 능력이 없을 뿐더러 글의 종류에 따라 정확도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¹⁰⁾

2.1.1 번역가 역할 [신명 신명조 10, 들여쓰기 없음]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번역가의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잇따르고 있다.

미래의 번역 분야 종사자는 결국 ‘포스트에디팅’(post-editing·초벌 기계번역 뒤 감수 작업)을 하는 이들과 전문 번역가로 나뉘 겠다.....

[직접인용, 글자크기 9, 줄간격 150%, 왼쪽/오른쪽 여백 15.0pt]

10) 국민일보에 따르면, “AI 번역도 결국 인간 언어능력... 번역가 역할 달라질 것”....

[글자모양 본문과 동일, 글자크기 9, 줄간격 145%]

〈표 1〉 구글 번역과 네이버 번역 비교
[영어의 경우 'Table 1'으로 표기 / 고딕 7.5, 가운데 정렬]

구글 번역	네이버 번역

[표 안은 신명신명조 9, 줄간격 130%]

[한 줄 띄기, 줄간격 162%]

〈그림 1〉 인공지능 번역과 번역가의 역할
[영어의 경우 'Figure 1'으로 표기 / 고딕 7.5, 가운데 정렬]

[두 줄 띄기, 줄간격 162%]

참고문헌

[신명 태명조 11, 가운데 정렬](영어의 경우 'References'로 표기)
 [신명 신명조 10 /Times New Roman 11, 줄간격 162%, 내어쓰기 25pt]

김순영, 이경희 (2012) 「 「대성당」 번역본의 문체적 특성 고찰 」, 『번역학연구』 13(1): 33-58.

조의연 (편저) (2014) 『번역문체론』, 서울: 한국문화사.

Davis, R. C., & Schleifer, R. (Eds.). (1998). *Contemporary literacy criticism: Literary and cultural studies*. New York: Longman.

Grauberg, W. (1989). Proverbs and idioms: Mirrors of national experience?. In G. James (Ed.), *Lexicographers and their works* (pp. 94-99). University of Exeter, 94-99.

Hatim, B., & Mason, I. (1990).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London: Longman.

Al-Jubouri, A., & Knowles, F. (1988, March 3-4). A computer-assisted study of cohesion based on English and Arabic corpora: An interim report. In *Proceedings of the 12th International ALLC Congress*. The 12th International ALLC Congress, Geneva (pp. 98-110). ALLC.

[한국어 문헌을 앞에 표기하고 외국어 문헌을 뒤에 표기한다.]

[두 줄 띄기, 줄간격 162%]

김동국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교수

kim@dongguk.edu

관심분야:

논문투고일: 2021년 월 일

심사완료일: 2021년 월 일

게재확정일: 2021년 월 일

동국대학교 번역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

(2019년 11월1일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윤리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 제기, 판단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동국대학교 번역학연구소(이하 '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기관 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

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⑥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⑦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2.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 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심의, 의결한다.

1. 연구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착수 결정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대한 사항
3. 예비조사위원 및 본 조사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4. 재심 요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6. 연구 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장 구성 및 운영

제5조(구성 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운영위원장, 연구위원 중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연구소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 및 위원장)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겸직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3인 이상 위촉하고 동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2명 이상 위촉한다. 단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위원장 및 위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전문위원)

조사나 검증의 전문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위촉으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9조(접수)

부정행위에 대해 연구소장에게 실명으로 제보된 건만 접수한다.

제10조(예비조사)

1. 위원회는 관련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연구소장이 담당하되, 예비조사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3.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
 -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 과제
 - ③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④ 관련 증거 자료
 - ⑤ 제보 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

제11조(본조사)

1.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본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본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본 조사위원회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4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인사를 2명 이상 위촉한다.
3. 본 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 후 90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 정보(익명 제보인 경우 예외)
 -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 과제
 - ③ 해당 연구 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④ 관련 증거 및 증인
 - ⑤ 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 ⑥ 본 조사위원회 명단

4. 조사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본 조사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활동 수행 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6. 본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본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 시 연구소장에게 징계 및 제재 조치를 권고한다. 연구윤리 위반이 발각될 시 해당 저자는 5년 동안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동 기간 동안 투고 논문심사 도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본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 시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3. 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하여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시 연구소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4. 1항, 3항의 징계 및 상당한 제재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4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조사의 원칙

제15조(절차적 권리 보장)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주어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고지해 주어야 한다.

제16조(출석 및 자료요구)

1. 조사 시 필요에 따라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한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2. 조사 시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 보존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의 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의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의 유지 등)

1.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하며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국가기관의 요구 등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각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관계 위원은 조사·심의·

의결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동일하다.

제18조(제보자 보호)

위원회는 제보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보복행위에 대한 방지 조치와 보복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리고 위원장에게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1년 제 2 권

발행인: 김 순 영

발행일: 2021년 2월 28일

발행처: 동국대학교 번역학연구소

연락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만해관 355호

전화: 02-2260-8657

이메일: trans@dongguk.edu

홈페이지: <https://trans.dongguk.edu/>
